

제419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 12월 16일(월)

장 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현안보고

상정된 안건

- | | | |
|---------|-------|---|
| 1. 현안보고 | | 1 |
|---------|-------|---|

(10시 11분 개의)

○ 위원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조태열 외교부장관 및 김영호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간략하게 현안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보고

○ 위원장 김석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영배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오늘 또다시 찾아온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위기 상황에서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이 된 지금 이 상황에서 외교통일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국격과 신인도가 추락하면서 수출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의 생존에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는 피치나 S&P, 무디스 등에서도 현재 이런 국가 비상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한국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한 달 남짓 후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을 하고 출범을 하게 됩니다. IRA·칩스법 등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대한민국에 위협적인 그런 소식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출범과 함께 격동하는 세계 질서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외교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심각한 질문도 제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런 국가 비상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견재하고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전 세계인과 함께 민주주의를 증진시키고 세계인과 함께 할 수 있는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가라는 점을 저는 분명하게 메시지를 발신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민주공화국의 또 하나의 축인 우리 국회가, 특히 외교통일위원회가 그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장님께 두 가지를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처럼 외교통일위원회를 앞으로는 필요하다면 수시로 그러나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잠잠해질 때까지 좀 지속적으로, 위원회 위원장께서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2주에 한 번 정도 외교통일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정기적 개최를 통해서 대외적인 신인도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지금 권한대행 체제에 있는 정부가 외교적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뒷받침 역할도 하고 동시에 잘못된 경우는 우리 국회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바로잡는 그런 역할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가능하다면 위원장과 간사가 참여하는 주간 단위의 필요한 장차관님들과의 현안점검회의 같은 형식의 그런 점검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도 정당 소속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고 또 민주공화국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 소속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외교·통일부장관 두 분이 국민적으로도 비상계엄을 왜 제대로 막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질책과 동시에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더 제대로 대한민국을 지켜라라고 하는 명령도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저는 대한민국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제가 제안드린 그 두 가지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고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 위원 (손을 들)

○위원장 김석기 예.

○김건 위원 지금 이 비상 시기에 외교통일위원회가 초당적으로 우리 외교를 지지하고 그다음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데 대해서 반대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어떤 특정한 주기를 정해서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상 시기다 보면, 저도 해 봤고 공무 경력이 있어서 다 아시겠지만 상임위 개최면 부처가 여기에 준비하고 나와서 답변하고 이러는 것이 사실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소모돼서 외교에 들어가야 될 우리의 에너지가 분산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걸 고려해서 앞으로 필요할 때 적절한 시기에 여야가 협의를 해서 상임위 개최 문제를 논의해 가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안철수 위원님.

○**안철수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외교적으로 정말로 위기입니다. 지금 현재 많은 외국에서 한국이 과연 믿을 만한 그런 교역국인가 그리고 또 안정돼 있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외교부의 전 직원이 동원돼서 그리고 우리 의원 전체가 동원이 돼서 외교 또 의원 외교를 정말로 활발하게 해서 빨리 외국의 그런 불신을 불식시켜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영배 간사께서 2주마다 계속 회의를 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당장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부터 빨리, 우리가 먼저 열심히 해서 신뢰 회복을 우선 제대로 받고 나서 그다음에 논의해 볼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김준형 위원님.

○**김준형 위원** 의사진행발언과 자료제출 요구 건입니다.

약 2주 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비상계엄령 사태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우려를 안겨주었습니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대한민국 정부와 일부 부처가 오히려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악화시켰다는 사실은 우리 외통위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번 계엄령은 외교적으로 대한민국의 신뢰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를 불안정하게 하고 한반도의 남북관계를 심각한 혼란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동안 노력해 온 평화 통일과 한반도 안정의 기반을 위협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통위는 대한민국의 외교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지금의 혼란을 진정시키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외교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단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념과 정파를 떠나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외교는 신뢰에서 출발하며 한반도 평화의 수호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신뢰와 약속이 무너진다면 우리는 결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참된 민주주의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외통위는 이번 계엄령과 관련이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이를 규명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청합니다.

첫째, 12월 1일부터 6일까지 외교부와 통일부 장차관님들의 모든 관용차량의 운행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서 차량 운행일지는 기록·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계엄령 이후 두 부처 모두 해당 운행일지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요구를 무시하는 심각한 문제로 조속히 자료를 제출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교부장관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승인 내역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문제는 외환유치죄 차원에서 재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0월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확대 검토 이전부터 이미 국방부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 파병 가 있었던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해 왔습니다. 당시 이 배후에는 외교부장관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가 있음을 확인하며 또한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우리 정부가 공무 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방문한 횟수는 무려 77회에 달합니다. 어떤 부처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자주 방문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예외적 여권사용 협약 내역을 이미 두 차례 요청했지만 외교부는 개인정보와 외교·안보 사항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국회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무 방문임에도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부처가 언제, 어떤 사유로 방문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현시점에도 자료 제출에 매우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영사안전국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김건 간사님.

○**김건 위원** 지금 비상계엄과 탄핵안 통과로 인해 나라 안팎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국회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힘을 합치고 국제사회에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수록 헌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언행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대국이 있는 외교에 있어서 만큼은 정치적인 이익보다 국익을 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존경하는 김준형 위원께서는 주한 5개국 대사들이 만나 경주 APEC을 포함해 모든 국제 정상회담 개최를 보이콧하겠다 또 윤석열 정부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못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런 등등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발언들은 금도를 넘었습니다.

이에 주한미국대사관은 공식 SNS를 통해 ‘주한미국대사관은 외교 대화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지만 김준형 의원이 언론에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의 발언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을 때 영어 표현이 ‘어털리 폴스(utterly false)’입니다. 사실은 외교적으로 잘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가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어떤 불쾌감 이런 게 묻어난다고 생각되는데요. 주한영국대사관도 ‘영국의 APEC 불참 입장에 대해서 제기된 주장은 부정확하다’라고 입장을 냈고, 주한호주대사관에서도 ‘한국의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지지할 방침이다’라고 다시 밝혀서 김준형 위원님의 발언이 잘못됐다고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외교를 우리 국내 정치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국대사의 발언을 사실과 달리 왜곡해서 우리 국익을 훼손하고 또 국민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또 한미동맹의 가치를 훼손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준형 위원께서 국립외교원장을 하셨고 그때 저도 같이 외교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외교는 상대방이 있고 외교적 대화 내용을 공개할 때는 신중해야 되고 재삼 재삼 확인을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상대방으로부터 반박당할 발언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익을 훼손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하는 발언의 무게를 실추시킨 김준형 위원께서는 지금이라도 정중히 이 위원회 앞에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준형 위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예, 김준형 위원님.

○**김준형 위원** 제가 질의를 통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매우 믿을 만한 제보인 것이고.

조태열 장관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그날 전화 안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미국대사가 무슨 발언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전화를 안 받았다는 게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안 받은 미국대사가 그 급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 착한 사람인데 지금 바쁜가 보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 여구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받지 않은 한국에 대한 불만을 본국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주한미국대사의 자격이 없는 것 같겠지요.

그리고 한미동맹을 망친 게 지금 정부 여당인데 저한테 망친다고요?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저뿐만 아니라 이 계엄에 관련한 전후 상황이 미국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내부에 있는 고발자에 의해서 제보가 됐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요. 매우 유감입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김기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예, 김기현 위원님.

○**김기현 위원** 이 자리에서 같은 상임위 위원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방금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2년도 11월 달입니다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하고 폐르난데즈 주한EU대사가 비공개 접견을 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당시에 민주당 대변인이었던 김의겸 의원이 발언하기를 주한EU대사가 ‘윤석열 정부와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없어서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긴장이 고조돼도 교류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는데, 그러자 EU대사가 그날 당일 오후에 ‘제 말이 언론에 의해 반대로 오용되고 왜곡된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말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서 그 당시에 외교 문제를 이렇게 당리당략을 위해 오용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우려가 깊게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김준형 위원님이 똑같은, 그보다 좀 더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한 바 있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3급 국가기밀을 유출하면서 국익을 해쳤던 것이 논란이 된 바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명확하게 지금 주한미국대사 골드버그 대사가 ‘utterly false’,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혀서 미국과 대한민국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불쾌한 점을, 외교적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을 김준형 위원님께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골드버그 대사가 거짓말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주한미국대사의 발언 자체에 대해서 또 다른 논란들을 제기하는 것인데, 어느 것이 진실인지 물론 밝히기야 어렵긴 합니다마는 어느 것이 진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분명하게 미국대사가 자신의 말하고 전혀 다르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본인의 말이, 김준형 위원님의 말이 맞다고 우긴다 그러면 이게 외통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사과하시고 외교적 문제를 자꾸 당리당략이나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안 하겠다는 재발 방지 약속을 하시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신뢰하고 국익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 외통위에서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석기 위성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위성락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김건 간사님하고 안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정부는 과도 상태의 정부입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닙니다. 헌법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입니다. 이런 정부가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려면 좀 더 국민적인 맨데이트(mandate)와 소통을 통하여 조금 더 자기 위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외국이 볼 때 이 정부하고 믿음 있는 또 의미 있는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도적인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회와 소통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절차를 거쳐서 외교를 하는 것이 과도 정부가 하는 외교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외교하는 데 에너지가 분산된다, 직원들이 힘들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완전히 관료적인 관점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과도적인 정부가 대외적으로 신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외교를 하려면 반드시 국민과 국회와 소통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정부가 생각이 똑바르다면, 장관이 생각이 바르다면 오히려 그것을 원하고 함께하자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 대해서 제가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요. 국회와 더 많은 소통은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외교의 출발점이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관점을 가지시고 대처해 주셨으면 하고 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석기 다음, 이재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재정 위원 방금 위성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외교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근저에는 국민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 대표기관으로는 국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엄 상황에서 어제 탄핵에 이르기까지 지금 수많은 재외공관과 외국의 의원들은, 솔직히 다 아실 겁니다. 여당 의원님이나 외교부를 선택한 게 아니라 야당 의원님들께 관련된 상황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문의를 하고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해외신인도에서 기본적으로 대표성을 갖기에 부족한 지금 정부에서는 국회에 기대어 향후 수습을 반드시 이루어 가야 합니다.

물론 회의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진행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사전에 외교부가 상시적으로 위원에게 보고하고 위원과 소통하는 그런 절차를 끓는 데 기꺼웠다면, 그런 게 너무나 당연했더라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위원회가 잡혀서 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에도 숱하게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정부가 회의가 잡히지 않으면 다른 소통은 일체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 너무나 불보듯 자명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창구를 만들자는 게 저는 회의 개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김준형 위원님과 관련해서 여러 얘기를 하시는데요. 김기현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지난 사례 같은 경우는 제가 외통위에서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함께 참석했던 자리입니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외교는 관례라는 게 있고 또 특히 대사의 상대국을 존중한다라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은 맞습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어떤

설명을 하게끔 하는 것은 우리가 또 마땅한 예의를 갖추지 않은 것이고 그게 관행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준형 위원님의 특정한 단어 선택이나 이런 부분은 저도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한미동맹 관계에서 가장 치명타가 된 것은 계엄의 선포였습니다. 그 이후 어디와도 소통할 수 없다라는 그런 갑갑함이었습니다.

저희는 제발 티끌 보지 말고 대들보부터 봅시다. 그 이야기가 너무 늘어나는 건 지금 오늘 본 회의가 개최되는 취지에 어긋납니다. 대들보를 보고 대들보를 걱정합시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기 홍기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원 위원 오늘 외통위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진작 열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열린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요. 또 오늘 여러 사정 때문에 외통위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논란이 되는 얘기를 일단 접고 더 중요한 게 그날 12월 3일 날 장관들이 어떻게 발언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현재 외교·안보 상태나 또는 북한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먼저 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께서 빨리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윤후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윤후덕 위원 같은 말씀입니다.

김준형 위원님의 이런 말씀은 사실은 비상계엄 당시 그 긴박한 시점에서 미 대사가 전화를 했을 때 외교부장관이 전화를 안 받고 그런 외교적인 공백을 만들고 실제로는 외교적인 참사를 만들어 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규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래야 하는데 김건 간사는 오히려 동료 위원에 대해서 심한 얘기를하면서 이 상임위에서 사임을 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과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건 간사께서 김준형 위원께 사과한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상임위를 시작합시다.

○위원장 김석기 김영배 간사께서 처음 제안하신 정기적인 회의 개최 문제는 또 다른 반론이 있었기 때문에 여야 간사들과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준형 위원님의 지난주 발언에 대해서는 저도 그때 직접 들었습니다마는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윤석열 정부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못 하겠다고 본국에 보고했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국 주한대사들이 만나서 APEC 정상회담 전체를 보이콧 하겠다고 결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골드버그 대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부러 공개적으로 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APEC과 관련해서 지금 중앙 뉴스에도 그게 나오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특히 APEC 개최지인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대단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준형 위원님께서는 이런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을 입증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명확히 해 주시고 만약 그게 명확히 해명이 안 되면 사과 발언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시점에 김준형 위원님이 판단하셔서 명확히 해명을 하시든지 사과를 하시든지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러면……

○**이재정 위원** 그것은 계엄이 문제였지 김준형 위원 발언이 문제였나요? 경주가 혼란을 겪고 있는 게 계엄이 문제지 어떻게 일 개인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십니까? 이것도 의견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차제에 들으시지요.

○**위원장 김석기** 한정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한정애 위원** 저는 오늘 우리가 회의를, 상임위가 열리고 다 모인 상태에서 벌써 30분을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가 계속되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전체회의가 있었다면, 그 당시 김준형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을 때 정부 관계자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충분하게 답변이 됐을 것이고 그 오해는 그날로써 다 정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가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상임위를 열어 달라고 했는데, 전체회의를 열었는데 야당 위원들만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나왔던 말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정부 측이 아무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것 아닌가요? 그때 그 자리에서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었었고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날로써, 아니 그 시간으로써 정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을 회의를 제대로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당시 회의 개최에 대해서 참석하지 않았던 여당과 그리고 회의를 제대로 소집해 주지 않은 위원장님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그러면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태열 외교부장관님 나오셔서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현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작금의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다시 한번 국무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요 보고사항인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며칠간 본회의에서 소상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서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자료 1쪽 1항에 요약된 부분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추후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1쪽 2항의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기존 외교정책 기조하에 대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고 우리 국민들의 피해와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외공관을 포함한 글로벌 외교망을 전면 가동하여 한 치의 외교적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국익을 위해 필수적인 사안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외교활동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통령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조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국은 블링컨 국무장관의 성명 등을 통해 우리 민주주의의 복원력과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지지를 분명히 한 바 있고 어제 오전 대통령권한대행과 바이든 대통령 간 통화를 통해 이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저는 계엄선포 해제 이후 블링컨 장관과 한 차례 통화하고 골드버그 주한대사도 세 차

례 접견하는 등 미국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과는 권한대행 체제하에서의 협력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현재 통화시간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당면 과제인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준비 작업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한미·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 및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동경에서 한미·한일·한미일 북핵 고위급협의를 가졌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국과의 소통도 더욱 강화해 대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일본과는 저와 이와야 외무대신 간 통화 및 1차관의 미즈시마 주한대사 면담 등을 통해 양국 간 우호협력 및 한미일 협력 기조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와야 외무대신과도 다시 통화할 계획입니다.

중국과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최근 한중 FTA 공동위원회와 한중 경제공동위 등 양국 간 경제·통상 협의체를 예정대로 개최하였고 차관보의 주한대사대리 면담 등을 통해 국내 상황에 상관없이 양국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조만간 왕이 외교부장과도 통화해 양국 간 긴밀한 소통 및 협력 의지를 다질 계획입니다.

유럽·아세안·아태·아중동 지역 등 여타 지역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도 각 실국장이 소관 지역 주한대사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접촉하면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G7 국가 및 EU 주한대사들을 제가 직접 만나 최근 국내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우방국 외교장관들과도 메시지 교환을 통해 소통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정된 다자외교 일정도 적극 소화하여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를 조기에 회복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매년 개최해 온 세계신안보포럼과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최근 예정대로 서울에서 개최하였으며 우리 주최로 개최된 한미일 인태대화 및 한호일 인태대화와 함께 APEC 2025년 심포지엄·비공식 고위관리회의도 서울에서 개최하여 내년도 APEC 의장 수임 활동을 본격적으로 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활동에 영향이 없도록 경제외교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제부처는 물론 기업 및 재외공관과 함께 긴밀한 민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경제안보 관련 현안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미국발 불확실성 요인에도 실효적으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어제 대외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 참석하였고 이번 수요일에는 경제부총리와 함께 합동 외신기자간담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경제부총리, 산업부장관과 함께 매주 목요일 오전에 대외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갖고 대외 경제환경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외국민 보호와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주에 제4차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주재하였고 최초의 외교부-재외동포청 정책협의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탄핵 정국에서도 우리 외교가 복합 위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김영호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선 저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데 대해 참담함을 느끼며 불안을 느꼈을 모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로 제가 통일부장관으로서 해 왔던 일들에 대해 위원님들과 국민들께 있는 그대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배포해 드린 보고자료 1쪽입니다.

저는 지난 12월 3일 대통령실로부터 직접 통보를 받고 저녁 8시 35분경 대통령실에 도착하여 밤 10시 45분에서 50분 사이에 귀가하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 도착한 후 처음 인지하게 되었고 당시 저는 계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그 반대의 근거로서 경제·외교·안보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다만 12월 4일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 통지가 원활치 않아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12월 4일 오전 7시에는 부내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북한 동향을 점검하고 당면한 일정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후에는 11시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2쪽, 현 상황 관리를 위한 노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9일에는 미국 외교정책위원회 방한단을 만나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하였고 10일에는 국민들께서 더 이상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통일부장관으로서의 입장을 설명드렸습니다. 13일에는 평화경제 특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지역균형발전과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3쪽, 북한 동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연말·연초 예정된 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경제부문에서의 성과 달성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와의 신조약을 발효하고 다방면에서 더 격상되고 밀착된 관계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 정국과 관련해서는 첫 일주일간 침묵했으나 12월 11일부터는 우리 내부 시위 동향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계엄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있습니다.

4쪽, 향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면하여 통일부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다양한 긴장 요인들을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대북전단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상황관리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하고 있으며 지난 12일 전단단체들에게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남북대화가 필요하다는 그간의 정부 입장을 견지하면서 계속해서 판문점 정기통화를 시도하는 등 남북 채널 복원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북정책과 관계된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우리 재산권 침해 동향을 주시하며 기

업과 소통하는 한편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평화경제특구법 후속조치는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질의는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주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간사 간 협의된 대로 5분으로 하며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위원 조태열 장관님, 여쭙겠습니다.

제엄법 2조 5항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 또는 변경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윤상현 위원 그런데 당시 이것을 국무회의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졸속 회의였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이미 제가 본회의 때 진술한 바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까? 워낙 경황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것은 대통령께서 미리 알려 주지 않으셨고 막판에 아마 국무위원들 의견을 들어야 될 판단이 서서 소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위원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왜 비상계엄을 선포하신다고 말씀을 안 하셨나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제가 반대의견을 말씀드렸을 때 상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대국민 담화 때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러면 현재 여러 가지 어떤 의도, 여야 관계 이런 말씀하신 건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런 얘기하시면서 오죽하면 내가 이런 결정을 했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상현 위원 오죽하면 왜 이런 결정을 했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찬성하신 건 아니시지요? 장관님은 명백히 반대를 하셨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제가 다시 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윤상현 위원 그런데 반대를 하셨는데 왜 그것을 절대적으로 막지는 못하셨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제가 혼자 반대한다고 막아지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러면 거기서 암묵적으로 찬성하신 분은 혹시 한 명이라도 있으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제가 도착한 이후 한 집여 분 동안 있었고 그때는 제 말씀에 대한 대통령 답변으로 시간이 갔기 때문에 제가 도착하기 이전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윤상현 위원 거기에 말씀을 안 하시는 국무위원들도 전부 다 반대로 생각하고 계셨지요? 암묵적으로 찬성하신 분은 아무도 없으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없습니다. 제가 접견실로 옮겨서 서로 의견 교환할 때도 다들 걱정을 했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명백히 반대를 하시고 또 암묵적 찬성하신 분도 없는데 이것을 부화수행, 소위 말해서 형법 내란죄로 구성되는 부화수행의 죄로, 혐의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된다 하시는 거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것은 사법적 판단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위원** 그리고 사실 이 국무회의라는 게 어떤 심의이지 의결 기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의견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거지 최종 결정을 내리는 의결 절차는 아니다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반대입장을 저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셨는데 그것을 어떤 내란, 무슨 부화수행의 혐의로 몰아가는 것은 저는 좀 과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같은 입장이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제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윤상현 위원** 예, 그것은 뭐 그렇겠습니다.

장관님, 최근에 미국의 국방수권법안 통과된 거 아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윤상현 위원** 국방수권법안을 보면 내년도 미국 국방비가 한 8900억 달러가 좀 넘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윤상현 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한국 관련 규정입니다, 주한미군 관련 규정. 이것을 제가 한 11월 5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계속 줄기차게 얘기를 했는데 외교부에서 이것을 안 받으시더라고.

어떤 얘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2024년 6월 달에 하원에서 이 NDAA 법안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상·하원 합동으로, NDAA에 한반도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한반도 관련 규정이 아시다시피 한반도 주둔 미군은 2만 8500명으로 한다 그리고 한미방위조약에 의해서 확장 억제를 한다, 이 두 가지인데.

장관님, 트럼프 1기 때 국방수권법안의 내용이 어떤지 아십니까?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다르다는 거요?

○**윤상현 위원** 다릅니다. 이게 바이든 정부에서의 안이고 트럼프 1기 때 국방수권법안의 내용은요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을 주둔시킨다.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를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라 그리고 한국의 안보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미국의 국가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건을 걸고서 엄청나게 까다롭게 주한미군 철수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제가 레임덕 세션에 언론에 나가서 우리 외교부가 열심히 뛰어 가지고 상원에서도 옛날 트럼프 1기 때 같은 한반도 관련 국방수권 이 문제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액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다가 이번에 며칠 전에 상하원 합동 국방수권법안의 내용을 보니까 하원에서 한 게 그대로 올라와 있다.

그래서 외교부가 트럼프 1기 때 국방수권법안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런 거 안하고 있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주한미군 현황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주요 골자가 포함된 법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이게 법안인데 요 몇 가지 조건으로 해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엄격하게 못 하게끔 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염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재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강 위원** 의정부을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통일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석열의 계엄선포 행위, 탄핵소추도 되었지요. 이런 행위가 내란입니까,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 문제는 현재 법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강 위원** 내란이거든요. 명확한, 명백한 내란 획책입니다.

본인은 내란에 가담했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강 위원**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하려면 계엄선포 전에 국무회의에서 장관은 한반도 평화 유지의 책무를 다해야 할 통일부장관으로서 직을 걸고 반대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저도 명백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재강 위원** 그간 장관의 언행을 들이켜 보면 남북 긴장 관계를 조성하면서 국지전 유발과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입니다. 이번 내란 사태를 지켜보면서 통일부가 왜 대북전단 살포 방지에 의지가 없었는지, 왜 대북전단 살포 당시 옹호했는지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일당이 국지전을 유발하고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원점 타격, 무인기 정찰 등 북한 자국 행위를 했다는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부도 북한을 자극해서 안보 불안을 유도하여 내란 준비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지난 8월 12일 충암고 출신의 대통령 경호처장인 김용현을 국방부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또 국방부장관 임명 일주일 뒤에 윤석열은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 자유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 암약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8월 15일 통일 독트린이 발표되었습니다. 통일 독트린은 자주·평화·민주의 기본원칙과 남북 화해와 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라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북한을 통일의 주체에서 배제시키고 대북 방송과 대북전단을 통해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여 혁명을 통해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과 결과가 결코 평화적이지 않습니다.

통일 독트린, 내란을 모해하는 과정에서 구상한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강 위원** 그러면 누가 구상했습니까?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에서 그와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실로 보냈고 대통령실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강 위원** 논의 과정에 국방부도 있었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재강 위원** 왜 말씀드리기……

○**통일부장관 김영호** 제가 잘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이재강 위원** 혹시 윤석열로부터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본 적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런 적 없습니다.

○**이재강 위원** 통일 독트린은 한반도 평화를 깨뜨리고 남북 긴장관계 조성과 무력 충돌을 유발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내란 공모자들에게 결국 계엄의 포석을 만들어 주는 통일 로드맵이었습니다.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이 통일 독트린은 우리 헌법 제4조에 기초한 그리고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강 위원** 올 들어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이 수없이 오가고 9·19 군사합의가 파기되었습니다. 대북 확성기가 재개되면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통일부는 북한에 전단과 USB 전파로 북한을 자극하는 심리전을 지원했습니다. 이미 남북 긴장관계를 조성하는 반통일적 통일부의 행태에 대해서 수도 없이 경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장관은 통일부를 윤석열 내란 일당에 현납했습니다. 앞으로 통일부가 반통일적 대북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통일 독트린 즉각 폐기뿐만 아니라 심리전과 다름없는 북한인권 증진 사업 모두를 폐기해야 합니다.

장관이 사전에 내란 일당의 업무를 몰랐다고 하면 장관으로서 매우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이었고 알았다고 하면 내란 가담죄로 지금 당장 수사해야 합니다. 무엇이 됐든 통일부장관으로서 업무 수행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직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고 이미 총리님께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이 직에 있는 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지호 위원** 여기 계신 분 모두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당연히 공감하실 겁니다. 사실 비상계엄 이전에도 외교적 상황은 위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2차로 들어서고 우크라이나에서 러북을 비롯한, 러북 관계 변화로 인해서 이에 따라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에 큰 위기가, 지정학적 전환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염려는 비상계엄이라는 사태 이후 대한민국이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에 훨씬 더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부장관님이 윤석열 씨의 비상계엄을 만류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70여 년간 쌓아 올린 외교 신뢰가 한 번에 무너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외교부장관님의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대한민국의 외교 신뢰를 구성하는 자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힘의 논리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런 하드 파워도 있겠지만 소프트 파워의 힘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차지호 위원** 저는 외교부장관 얘기대로 민주화 이후 행정부의 높은 민주적 리더십과 신뢰도가 사실 대한민국의 큰 외교적 자산이었습니다. 그 부분 동의하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차지호 위원** 그리고 사실 얘기하신 것 중에 외교 신뢰를 70여 년간 쌓아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계엄 정부나 군사 정부가 제대로 된 외교 신뢰를 쌓을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 70년간의 절반에 못 미치는 민주적 정부가 외교적 자산을 쌓아 올렸고 그 행정부에 대한 신뢰는 지금 한 번에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비상계엄이 만드는 외교적 위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위기의 첫 시작 단계에서 이것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에 대한 굉장히 큰 걱정과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는 국회와 외교부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거버넌스는 행정부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 이 3개의 축이 움직이고 있고 현재 행정부의 대외 신뢰도는 극단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누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정부와 일을 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안정적으로 외교 관계가 구축될 수 있습니까? 사실 환상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이를 민주적으로 회복한 입법부의 신뢰가 대외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비상계엄 상황 안에서 해외에 있는 주요 외교 기관들 혹은 의회, 정부 리더십의 연락을 받은 것은 저희 외교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이 주로 연락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의 대외적인 외교 신뢰가 극단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이 국회, 특히 외교통일위원회와 외교부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고비마다 국회의 협조 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않고 협조를 요청하고 또 필요한 보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지호 위원** 필요할 때 요청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국회와, 특히 외교통일위원회와 외교부 간의 협력은 사실 외교적 전략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강화시켜 주실지 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기존 대외 외교정책 기조 하 일관성 있는 외교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제가 드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간 한반도의 긴장도를 높여 왔던 여러 대외 외교정책들을 계속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한반도의 긴장도는 굉장히 높아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을 우리 정부에 전가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염연히 그 긴장 고조의 원인 제공자고 러시아가 거기에 협조했고……

○**차지호 위원** 그러면 우리 정부의 역량이 그렇게 없는 겁니까? 외교라는 것은 여러 국가들이 축을 이루면서 서로 주고받는 건데……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런 상황에서 외교안보가 해야 될 첫 번째 조치는 억지력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차지호 위원** 저는 강하게 의심이 드는 게 이번 비상계엄 이전에 그 북측과의, 북한과 긴장도의 상승 요인들 중에 하나가 국내 비상계엄을 의도했던, 그 동기가 됐던, 정치적 동기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비상계엄이 일어나고 나서 외교부의 태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지 않는 방식의 적극적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외교부장관님은 그 원인조차도 지금 부정을 하고 계십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원인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 김영호 장관께 일단 몇 가지 확인 좀 부탁할게요.

비상계엄 선포될 때 국무회의에 참석하셨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했습니다.

○**조정식 위원**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반대했다고 아까 보고를 했는데 국무회의 자리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국무회의 전에 얘기를 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제가 그 회의실에 참석을 해서, 대통령 집무실에 직접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대통령께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경제·외교·안보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

○**조정식 위원** 국무회의는 그날 10시 28분경에서 한 5분밖에 안 걸렸다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식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전에 얘기했던 거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정식 위원** 그러면 계엄에 대해서 처음 인지한 게 언제예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도착해서 인지했습니다.

○**조정식 위원** 8시 35분경에 도착해서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35분경에……

○**조정식 위원** 도착해서 그때 총리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몇몇 국무위원들이 모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 위원** 접견실에서도 삼삼오오 얘기도 나눴고.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9시 조금 전이었습니다.

○**조정식 위원** 그때 처음 인지한 건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조정식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대통령 만나서 따로 얘기를 하셨다 이 얘기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조정식 위원** 왜 통일부에서 거짓말합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

○**조정식 위원** 저희가 통일부에 ‘통일부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계엄선포를 인지한 시점이 언제냐?’ 하니까 ‘국무회의 전까지는 몰랐다. 계엄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회의 개

시 후 인지했다' 이렇게 보고가 왔어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 위원 왜 통일부가 거짓말을 해요? 거기에 8시 35분에 도착해 가지고 그다음에 10시 28분까지 한 2시간가량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계엄 국무회의 때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토론이 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이미 다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인지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왜 이런 거짓말 보고를 합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러니까 그날 회의실에서 열린 그 회의의 전체 기간을 아마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정식 위원 회의 개시 후 인지했다 그랬고. 그다음에 국무회의 개시한 다음에 인지했다고 이렇게 저희 의원실에 처음에 자료와 설명이 왔어요. 지금 앞뒤가 완전히 안 맞아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식 위원 처음에 최초에 거짓 보고한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국무회의 끝나고 맥으로 귀가하셨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조정식 위원 몸이 좀 아프셨어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건강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조정식 위원 계엄 해제 국무회의 얘기는 들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유선으로 오지 않고 SNS로 와서 제가 그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면 참석해서 당연히 반대했을 것입니다.

○조정식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7시에 국무회의 소집하고 6시 45분에 자택에서 출발했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보다 조금 더 일찍 출발했습니다.

○조정식 위원 여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6시 45분 자택에서 출근했다. 그러면 그전까지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겠네요? 그때까지 주무신 거예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아닙니다.

○조정식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제가 5시 이전부터 그 상황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정식 위원 누구 통해서 관리했어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제가.....

○조정식 위원 통일부차관, 그때 계엄선포 이후에, 계엄선포 얘기 처음에 언제 들었어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조정식 위원 뉴스 보고 알았지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예.

○조정식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디 계셨어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집에 있었습니다.

○조정식 위원 7시까지? 출근할 때까지?

○통일부차관 김수경 예.

○조정식 위원 좀 황당하지 않아요? 장관이나 차관이나 그때까지 완전히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장관, 장관은 계엄 선포하고 계엄이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7시에 출근한 다음에 대응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조정식 위원 그사이가 비상 상황인데 외교부에서는, 외교부장관 얘기는 국무회의 끝나자마자 바로 각 실국장 회의 소집해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외교 공백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런 얘기 했다고 했거든요.

통일부는 북한의 동향이 어떻게 될지, 이 상황이 어떻게 미칠지, 남북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조정식 위원 장관·차관 다 그냥 7시까지 가만히 있었던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통상적으로 통일부가 하듯이 정보분석국은 북한 방송·라디오 등을 청취하면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한정애 위원 이게 통상적인 상황이에요?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형 위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고 제가 본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석기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준형 위원 예, 저한테 요청하셨으니까.

제가 뭐 해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김어준 씨가 나와서 우방국 제보라고 얘기를 했지요. 제가 조태열 장관이 대사랑 점심을 먹었는지 그날 저녁에 전화기를 꺼 놓고 못 받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우방국 제보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제가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APEC을 혼든다고 본말을 전도하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25년 포항에서 교수를 했고 포항과 경주는 한 생활권입니다. 누구보다 APEC을 기뻐하고 지난번에 특별 결의안도 제가 기꺼운 마음으로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걱정돼서.

그리고 제가 그때 발언을 할 때 아무도 안 계셨고, 한정애 위원님 말씀하셨고요. 중앙 일보가 거의 동시에, 외통위가 되는 동시에 이 보도를 했고 저는 파이브 아이즈라는 말도 안 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혹시라도 이게 해가 될까 봐 그때 제가 우방 주요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본말을 전도하셔서 저보고, 저는 양심에 거리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돼서 했던 말이고.

그런데 지난번에 엑스포도 저를 매도하시고 보안이 해제된 문서를 가지고 저한테,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한테, 동료 위원이 무슨 자격으로 저를 사임하라고 하십니까? 사과할 마음도 없고 저는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김준형 위원님, 지금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은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골드버그 주한대사가 거짓말이라고 반박을 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입증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입증을 못 하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APEC 관계 얘기는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김준형 위원 아니, 했다고요. 그런데……

○위원장 김석기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그 얘기를 직접 들었는지, 당사자들이 아니라 부정을 하니까 입증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이재정 위원 누구 때문에 혼란스러워졌어요? 비상계엄 때문에 이 꼴이 났지 정말…… 되짚어 보십시오. 지금 목소리 높일 일은 그 일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여기서 집권 여당의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사과부터 하고 시작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좀 주소는 알아갑시다, 우리. 비중은 두고 합시다. 여기서 목소리 높이실 일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석기 김준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정 위원 여당 위원장으로서 그 정도밖에 말씀 못 하시는 것 진짜 유감스럽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그 내용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입증하시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질의하십시오.

○김준형 위원 제보자를 밝힙니까?

○이재정 위원 참 주소 잘 찾고 계십니다, 진짜. 위원장 자격 없다, 자격 없어, 진짜!

○김준형 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석기 질의하십시오.

○김준형 위원 제보자를 밝힙니까 그러면 제가? 우방국 내부에서 나온 제보 중 일부였다고 얘기한 것의 근거를 설명한 것이고, 제가 APEC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파이브 아이즈라는 부분을 제가 감췄다는 얘기고 그 얘기 안 했다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질의하십시오.

○김준형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PPT 하나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저 말씀은 하셨지요? 한번 보십시오. ‘외교부장관 사임할 것인가 개인적 신념으로 고뇌와 갈등을 하시면서 전화기를 꺼뒀다’,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저는……

○외교부장관 조태열 왜 믿을 수가 없으십니까, 저의 신념에 관한 얘기를?

○김준형 위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한미동맹에 대한 생각을 먼저 공인으로 하셔야 되고요.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무슨 설명을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준형 위원 들어 보십시오.

혹시라도 이전에 미국 쪽에서 얘기하는 가운데 한국의 계엄 소문에 대해서 미국이 조금이라도 질문한 적은 있었습니까, 장관한테?

○외교부장관 조태열 언제요?

○김준형 위원 그전에요. 왜냐하면 이 계엄 소문이 몇 개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 김준형 위원 들어 본 적이 없습니까?

○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 김준형 위원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미국하고 협의한 것은 아니고 마지막에 통고도 아니었다면 그날 주한미국대사가 전화를 하면 어떻게든 입장을 설명했어야 되잖아요?

○ 외교부장관 조태열 무슨 설명을 제가 어떻게 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준형 위원 반대하셨다면서요. 그다음에 한미동맹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전화는 받으셔야지요. 그냥 외교적 멘트를 하더라도 하셨어야 그게 외교부장관으로서의 역할이지. 지금 사퇴를 고민하는 것은 그다음이겠지요.

○ 외교부장관 조태열 글쎄요, 소통이 그 시간에 없었다는 것에 대한 비난을 제가 받을지언정 그 잘못된 판단에 입각한 소통을 통해서 미국을 미스리드(mislead)하는 것은 안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 김준형 위원 미스리딩을 막기 위해서 장관님께서 이 부분을 진정시켰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외교부장관 조태열 소통을 했을 때 제가 무슨 소통을 했을까 내용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형 위원 장관님, 장관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잘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한 덕수 총리처럼 지금 다시 사람을 바꾸고 하는 시간 낭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 거취보다 장관님께서 여기서 남은 것을 잘 수습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똑같은 원칙이 그 일이 일어났을 때도 하셨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 거취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 김준형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다음 PPT 띄워 주십시오.

조선일보가 하면 특종이고 남이 하면 날조입니까? 오늘 계속 이 말씀을 하셔서……

아이카와도 제가 말씀드렸고 엑스포도 말씀드렸고 또 국방부의 육군 탄약정책담당관을 우크라이나 파병한 것도 안보실 1차장이 부인했다가 결국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크로스 체킹도 안 하고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우방국에서 제보하는 것을 그러면 여기 확인도 하지 않고 지나가라는 말입니까?

○ 외교부장관 조태열 똑같은 사실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 김준형 위원 외교부장관님, 그러면 미국이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하겠습니까, 외교적으로?

○ 외교부장관 조태열 미국대사가 상종을 못 했다고 그랬을 텐데 영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 김준형 위원 저는 한국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 외교부장관 조태열 어떻게 그 말씀을……

○ 김준형 위원 그러면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미국에 보고했을 때 좋은 보고를 했겠습니까?

○ 외교부장관 조태열 똑같은 얘기도……

○ 김준형 위원 자꾸 본말을 전도하지 마십시오.

○외교부장관 조태열 아니, 똑같은 얘기도 대외 공개하실 때는 신중하셔야지요.

○김준형 위원 제가 대외 공개했습니까? 여기 와서 질문하는데 안 오셨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이 자리에서 하신 것으로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김준형 위원 그러니까 안 오셨지 않습니까.

다음 주십시오.

잘 보십시오.

브래드 셔먼, 15선입니다. 유력한 정치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한국의 평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한국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과의 방송에서 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는 한—제가 미국 대외 정책을 25년 동안 전공하고—하원의원이 저 정도의 정보를 가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사도 지역구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북한의 도발이 한국에서 위장 작전으로, 김어준 씨가 얘기하는 그 맥락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저 얘기를 누가 받았을까요? 결국 미국에서 한국 정부와 손절하기 위해서 미국의 하원의원과 저와 방송인과 그렇게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하원의원 한 사람의 언행에 대해서 제가 논평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김준형 위원 저는 장관께서 남은 기간에 그리고 그 이후에 골드버그 대사하고 만나면서 수습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날 한미동맹을 오히려 혼들고, 불안해하는 미국에 오히려 한미동맹을 해친 사람들이 지금의 정부와 여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의 역할에 대해서 미국대사가 어프리쉬에이트(appreciate)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석기 다음은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정 위원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과 현장에 나오셨던 국민들이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저도 계엄 선포되고 나오면서 제 10살짜리 아이 다시 못 볼 수 있다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현장에 있었던 저는 더 심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정 위원 예, 모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냥 경고용이었다, 장난이었지통 이런 얘기예요. 그 자리에서 할 말입니까? 지금 그게 이 상황의 핵심입니다. 한미동맹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격이 지금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여당 위원님들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마이크 앞에 서셨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말씀부터 시작하셨어야 합니다. 위원장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PEC 회의? 계엄 상황이었으면 개최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역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 개최지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한민국이 민주적 회복 탄력을 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가지 않으면 국제회의를 개최한다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 주소를 아신다면 위원장님은 스스로 집권 여당의 의원으로서 그리고 외교통일을 책임지는 국회의 위원장의 직으로서 지역구민들께 먼저 사과를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본질을 쫓아가는 회의가 돼야 됩니다.

저는 외교부장관한테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외교부장관 반대할 걸로 알았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제가 날을 세웠지만 장관님이 가지신 외교에 대한 소신과 국가에 대한 애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다행스러웠습니다. 경제부총리와 외교부장관의 이야기가 훌러나올 때 저는 기회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대정부질문할 때 시간을 드린 겁니다.

다만 이후에 발언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조금 전에 여당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대통령의 말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오죽하면’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대통령의 그 수많은 말을 요약하는데 하필 그 단어가 등장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현 정부하의 선관위조차도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자기부정이라는 말까지 평소에 기대할 수 없는 표현까지 써 가면서 자기 반박을 했습니다. 언행에 신중해 주실 것을 우리 장관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을 위해서도 그건 아니라는 생각 듭니다.

김영호 장관, 본인은 반대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장관의 도착 시간을 보면 어떤 누구보다 훨씬 빨랐어요. 8시부터 사태가 끝날 때까지 계속 있었어요. 집무실에 갔다가 또는 대기실에 갔다가 접견실 갔다가 이렇게 오가는 과정 안에서도 모든 것을 지켜본 이상민 장관이 ‘반대는 한 2명 정도밖에 안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짐작기로는 경제부총리와 여기 계신 외교부장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소영 의원이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물었습니다. ‘여기 반대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할 때도 장관은 손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통일부장관 손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우리 조태열 장관께서, 제가 자꾸 ‘우리’라는 말을 붙입니다. 제가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솔직히. 조태열 장관께서는 접견실에 들어가서 장관과 대통령이 있었던 시간 그리고 나중에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이 있었던, 마지막에 도착한 장관은 시간이 없었을 거라고 하면서 당일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줄거리로 말씀을 주셨어요.

통일부장관이 도착한 시간이 9시 35분이라면 그리고 10시 40분까지 있었다면 이상민 장관이 목격하지 못한 그 반대의 순간은 혼자 독대를 하러 접견실로 들어간 장관이 몇 있었다 했는데 그러면 본인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어서 그때 반대를 하신 건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렇습니다.

○**이재정 위원** 독대를 하러 한 번 들어갔어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독대가 아닙니다.

○**이재정 위원** 언제 반대하신 거지요? 이상민 장관 기억에는 없는 사람입니다.

○**통일부장관 김영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회의실에 도착한 직후 총리님께서 이 계엄 반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대통령 집무실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리님과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제가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경제·외교·안보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특히 한미 관계가 완전히 끝장날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면서 그때 분명히 반대 의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재정 위원** 그러면 총리와 통일부장관과 대통령 삼자가 있는, 접견실을 드나드는 그 과정에서 삼자가 있는 곳에서 반대를 했다는 거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 자리에는 다른, 제가 들어갔더니 다른 국무위원들 몇 분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이재정 위원 외교부장관님, 처음에 접견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을 때 한 4명 정도 장관이 더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 통일부장관도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제 기억으로는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재정 위원 그러면 이상민 장관, 김용현 장관 그다음에 부총리 그리고 통일부장관이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법무부장관, 통일부장관.

○이재정 위원 법무부장관, 통일부장관. 그러면 숫자가 1명 늘어났는데요. 당시에 통일부장관이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제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제가 모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재정 위원 본인이 있는 상황에서는 못 들으신 얘기고 그 이전에 어떤 게 있었는지는 모른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제가 있는 동안에는 제 얘기에 대한 대통령님의 긴 답변과 거기에 대해 제가 또다시 한번 견의드린다는 그 주고받는.....

○이재정 위원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으면 모르되 어쨌든 장관님은 모르시는 상황인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성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락 위원 감사합니다.

지난 2년여 동안에 우리 외교는 최악의 한중 관계, 한러 관계, 남북 관계에 이르렀지만 한미·한일·한미일 협력은 외교 성과로 꼽혀 왔습니다. 그렇지만 사도광산 아래 일본과의 관계에 맹점이 드러났고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기반이 쳐참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외교는 북중러는 물론이고 미일과의 관계 등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계엄령 선포는 자유와 민주, 가치외교 수호자로 가장해 온 윤석열의 가면이 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민주주의 파괴자로서의 진면목이 드러났습니다. 한미, 한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합의문에 써 있던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협력이라는 미사여구가 모두 허언이 됐습니다. 바이든이나 기시다는 이제는 자기들이 윤석열이 아니라 사실은 전두환 같은 사람하고 자유민주 수호를 외쳤던 게 아닌가 머쓱하게 됐을 겁니다.

또 다른 희비극이 있습니다. 이러한 윤석열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재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나라 정상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더욱이 한미 양국 군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데 윤석열은 동맹군 모르게 병력을 빼내서 국민과 국회에 총부리를 들이댔습니다.

윤 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사후에도 상당 시간 미 측의 전화를 회피했습니다. 장관께서는 계엄에 반대하셨는데 이후에 미국의 연락을 피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미국이 연락한 의도는 계엄에 반대하는 의사를 전달하려는 것이었을 겁니다. 장관께서는 이것을 받아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것이 정상적인 임무일 겁니다. 계엄을 반대한다면 연락을 받아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최소한의 행동인데 이게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폭주하는 윤 정부 외교의 문제를 누차 지적해 왔고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의 전문가들이 이러한 폭주를 완화·완충하는 건설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누누이 주문했지만 그때마다 장관과 외교부의 간부들은 강변과 억지로 일관하고 옹호에 급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의 입지도 크게 축소되었고 직원들의 사기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외교부장관님과 외교부 간부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자성하는 마음이 없다면 양심이 없는 겁니다.

이제 탄핵이 가결됐기 때문에 외교 관계는 전보다는 안정이 되겠습니다. 차제에 각별히 당부하고 촉구할 것이 있습니다. 윤 정부는 한일 관계의 삼자 변제, 캠프 데이비드, 방위비 협상 등 모든 주요 외교 사안에서 국회와 아무런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후에 나중에 통보해 왔습니다.

지금은 과도정부입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을 모으고 국회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과도정부에 권위가 있습니다. 과도정부는 국민적 맨데이트(mandate)에서 약하고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침 민주당의 당 대표도 초당적인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고 국회의장도 권한대행께 국정안정협의체가 조속히 가동되도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 틀에서 정부가 국회와 외교 문제를 더 많이 소통하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외통위와도 더 많은 협의를 하고 이제부터는 사후 통보가 아닌 진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고 이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야만 과도정부가 외교를 해 나가는 데 힘을 얻고 외국도 과도정부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당파적으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대행 체제 정부가 또 외교부가 그러한 요청을 먼저 해야 하고 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제가 한두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석기 답변하십시오.

○외교부장관 조태열 위성락 위원님 지적하시고 비판하신 것은 겸허하게 수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가장, 가면’ 그런 표현에 지나침이 있었고 우리 외교부가 옹호하고 강변하는 데 급급했다는 말씀 제가 동의할 수 없고요.

당일 날 미국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대한 비판은 제가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모든 코멘트를 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 굉장히 평상시에 있을 수 있었던 상황을 전제로 하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제 입장에

위원님이 처해 있었다면 과연 그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또한 변명으로 비칠 수 있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거기서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런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소통을 해서 어떤 내용으로 소통을 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락 위원 잠깐만요. 미국 얘기 들어서 보고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거기서 임무는 일단 끝납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소통은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홍기원 위원 제가 12월 3일 밤에 자다가 보좌관의 전화를 받고 처음으로 계엄 소식을 들었었는데 첫 느낌은 ‘이게 꿈이야 현실이야’였습니다. 뉴스 방송 보고 사실로 생각이 돼서 국회로 와 가지고 담을 넘을 때 바로 옆에서 무장한 군인들이 줄지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무서운 느낌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현실감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동료 의원들이나 아마 국민들도 대부분 계엄 소식 처음 들었을 때 첫 반응은 ‘장난이냐, 가짜뉴스 아니냐’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터무니없는 계엄선포였는데 국무위원들이 그날 용산에서 했다는 반응을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외교부장관님, 통일부장관님께 각자 묻겠습니다.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외교 안보 문제에 큰 어려움이 생긴다, 미국과의 관계가 어려워진다 그런 말씀 하셨다는데 계엄선포 자체가 헌법 위반이다, 법률 위반이다 그런 것 지적은 안 하셨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70여 년간 대한민국이 쌓아 온 성취를 무너뜨린다는 말은 다 포함돼 있는 말씀 아닙니까? 위헌 여부……

○홍기원 위원 비상계엄 요건이 안 되잖아요. 누구나, 온 국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건데……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것은 기본적인 고려사항 아니겠습니까?

○홍기원 위원 그래서 대통령께 이 계엄을 선포하면 이것은 헌법 위반행위다 또는 계엄법 위반이다, 법률 위반이다 이런 것 지적하신 분 아무도 없어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는 제가 드린 일련의 말씀에 다 그런 것이 포함돼 있다고……

○홍기원 위원 통일부장관님, 그냥 외교 안보, 북한 문제만 걱정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법 위반이다, 헌법 위반이다 그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런 말씀은 제가 미처 드릴 기회가 없었고 위낙……

○홍기원 위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총리든 10여 명의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하는데 ‘선포하면 큰일 납니다’만 얘기하고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 위반이다, 법률 위반이다를 아무도 지적한 사람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아마 대통령도 그게 법 위법인 것을 인식을 못 했는지 모르겠어요, 국무위원이나 총리 누구도 그 문제를 지적 안 했으니까.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통령이 회의장에 있다가 갑자기 나가서 계엄 선포했어요. 그런데 집으로 간 국무위원이 있지를 않나 어디 가서 뭘 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분들이

있지를 않나. 적어도 그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그런 무모한 행위를 했으면 총리나 장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숙의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통일부장관님, 맥으로 가셨다고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홍기원 위원 세상에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맥에서 뭐 하셨어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집에 도착해서 TV 보면서 상황을 계속 체크를 했습니다.

○홍기원 위원 아침 7시에 회의 소집하고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홍기원 위원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후속 대책을 논의하거나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빨리 풀거나 이런 것을 논의하거나 아니면 부처 간부들 소집해서 대응하는 것을, 그런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또 상임위에서 그랬어요. 현 남북 간 상황 또 우리 정부가 대처하는 것을 보면 남북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런 지적 많이 했었지요. 그때 장관님 답변이 뭔지 기억하세요? ‘정부는 확고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북한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통일부장관님, 통일부가 그동안 해 온 게 정말 계엄선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해 왔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해서 다행이라고. 너무 황당해서 왜냐 그랬더니 만약 비상계엄 선포 안 해 가지고 지금처럼 탄핵 안 당했으면 남북 간에 전쟁 났을지도 모르겠다고. 대통령이 그간 한 얘기들을 보면 북한과 무력 충돌, 전쟁도 불사할 정도의 그런 성정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통일부도 일조한 거고?

이상입니다.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석기 다음은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12월 3일 날 오후 8시에 가장 먼저 대통령실에 도착한 사람은 이상민과 한덕수 총리입니다.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은 그 이후에 국무위원들이 하나둘 올 때마다 대통령 집무실로 같이 동행해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전 행안부장관 이상민이 5일 날 있었던 행정안전위원회에서의 현안질의에서 ‘반대를 한 사람은 2명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2명은 좀 드러난 것 같고요.

김영호 장관은 본인은 반대했다고 하지만 경제·외교·안보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가 아니라 우려입니다. 우려하고 반대는 남한과 북한만큼 거리가 멍니다. 옆에서 같이 그것을 듣고 있던 또 다른 국무위원이 본인을 포함해서 우려를 한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저는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한정애 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행안부장관 이상민이. 단 2명만 반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21시 전까지 도착했던 사람이 한덕수, 김용현, 이상민, 김영호, 조태열, 최상목, 박성재

입니다. 대통령실로부터 대부분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시기에, 모르겠습니다. 왜 이분들을 더 빨리 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의 계엄령 선포에 조금은 동의해 줄 만한 사람인 것 같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숫자가 안 되니까 추후에 조규홍, 송미령, 오영주까지 해서 11명을 채웠지요.

계엄령을 선포하고 난 뒤에 집으로 가셨다고 하셨어요. 집에 가서 TV를 보면서 상황을 체크했다.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그리고 통일부로부터……

○한정애 위원 아니요, 거기까지만요.

12월 4일 새벽 01시 1분에 국회가 비상계엄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국무회의가 열려야 되잖아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렇습니다.

○한정애 위원 누가 얘기하기도 전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화문 청사로?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런데 지금까지 국무회의가 열릴 때 SNS로……

○한정애 위원 지금까지 국무회의 열릴 때는 연락을 주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래서 제가 집으로……

○한정애 위원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래서 4시 27분에 윤석열 계엄 해제 선언을 할 때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랬습니다, ‘국무회의 정족수가 부족해서 모이는 대로 심의하겠다’. 01시에 비상계엄해제 결의안은 국회를 통과했는데 국무위원들이 안 모여요, 안 모여. 국무위원들이 안 모여서 1시부터 4시 반까지 자그마치 3시간 반 동안 국회에서 계엄군은 철수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계엄군이 철수한 것이 정확히 4시 반경이에요.

김수경 차관을 비롯해서 통일부 공직자들 생각해 보세요. 뭘 제대로 판단을 못하면, 대통령이 제대로 판단을 못해 가지고 일을 그르치면 장관이,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판단해야지요. 국무위원들로 제대로 판단이 안 되면…… 아니, 공직자들 이런 상황에서 비상 결 생각 못 합니까, 그것을 뼈 히 보면서? 다 무슨 꿀 먹은 병어리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병어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러니 윤석열 정부가 실패할 것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국무위원들이 국무위원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고, 국무위원이 명확하게 반대, 집무실 들어가서 반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정작 국무회의가 열린다고 대접견실에 다 모여 웅성웅성 거리고 있는데 대통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리 잡고 앉아요. 대통령이 나와서 화내듯이 뭐라 뭐라 뭐라 합니다. ‘이려저려 해서 나는 계엄령 선포해야 되겠다’ 그때 모두 일어나서 ‘안 됩니다. 반대합니다. 우리 모두 사직하겠습니다’ 못 했잖아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대통령님이 자리에 앉은 적이 없으십니다.

○한정애 위원 서서 하건 어쨌건 간에.

○외교부장관 조태열 회의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한정애 위원 회의 형식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국무위원들 11명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자는 않았지 않습니까?

12월 5일 날은 2명밖에 반대 안 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다 바뀝니다, 11명이다 반대했다고.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 비상계엄 쿠데타가 발발한 지 13일이 지나서 우리 외통위가 정식으로 소집이 된……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기 짹이 없습니다.

지금은 꽤 시간이 지나서 이제 비상계엄 쿠데타가 불법이다, 반헌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의 엄중했던 상황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아찔하기 짹이 없습니다.

저는 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이후에 포고령 위반으로 군법에 의해 체포돼서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45년이나, 44년이나 지난 민주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군사반란 쿠데타에 의해서 헌정이 중단되고 또 그것에 의해서 두 번째 처벌받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날 국회로 복귀했습니다만 참으로 21세기 민주 대한민국의 국격이 무너지고 국헌과 국정이 중단되는 위기의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두 장관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비상계엄은 헌법의 틀 내에서 이루어진 합법적 통치행위인가요? 외교부장관부터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제가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 인용한 제 표현에 제 생각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선 위원 통일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저도 반대의견을 표한 데는 그러한 생각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불법적 내란행위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 부분은 사법적 판단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 김영호 저도 그 부분은 법적으로 조사해서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선 위원 총리께서도, 이제 권한대행이 됐네요. 한덕수 총리께서도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가 절차적·실체적, 절차만이 아니라 실체적 흡결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절차였다 이런 것을 인정했다고 보는 데 동의했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절차적 흡결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용선 위원 우선 통일부장관, 묻겠습니다.

그날 계엄을 선포하는 날 국무회의가 소집된 것 같은데 가장 먼저 도착한 게 주로 외교·안보 관련 장관들이 도착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아마 외교·안보 장관 외로는 경제부 총리 정도가 참여한 것 같은데……

○외교부장관 조태열 경제부총리님 늦게 도착했습니다.

○이용선 위원 늦게 도착했습니까?

그런데 장관께서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경제·외교·안보 분야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반대했다고 하는데 대통령 앞에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한 게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때 같이 있었던 분은 누군가요? 총리하고 다른 장관들이 있었나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있었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런데 왜 이상민 장관은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선 위원 그 점은 아마 추후에 확인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소통의, 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못 했고 제가 그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참석해서 반대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용선 위원 아니, 국회에 군이 주둔하고……

○통일부장관 김영호 아니, 해제에 찬성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용선 위원 1시 1분에 국회에서 해제 결의는 있었습니다만 그로부터 3시간 가까이 지나서 대통령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칠승 위원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통일부장관님.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권칠승 위원 계엄선포가 된 이후 그 국무회의, 회의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국무위원들 모임 그 이후에 집으로 가셨잖아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끝나고……

○권칠승 위원 왜 집에 가셨어요? 비상계엄이 선포됐는데 집으로 가셨어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집에서 TV 보면서 상황 체크를 하셨다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국회 의결하는 것 보셨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권칠승 위원 실시간으로 보셨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집에서 확인했습니다.

○권칠승 위원 실시간으로 보셨지요. 그러면 당장 국무회의장으로 달려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제가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권칠승 위원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런데 SNS로 와서 제가, 통상적으로 연락이 유선으로 왔기 때문에……

○권칠승 위원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십니까? 정말 한심한 국무위원이라는 소리 들어도 할 말이 없잖아요. 전쟁 나도 집에서 TV 보실 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칠승 위원 그때 국회의원들 그날은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지도 않은 날이었어요. 전국에 다 흩어져 있을 텐데 다 올라왔습니다.

아니, 계엄선포를 했는데 국무위원들이 그 계엄 선포했다는 내용을 알면서도 집에 가서 TV 보고, 국회에서 해제 의결을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도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회의장에 모이지도 않고. 이게 정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이런 한심한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제가 그것을 유선으로 연락받거나 확인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참석해서 계엄 해제에 동의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권칠승 위원** 연락을 안 줘서 못 갔다 그런 것을 지금 변명이라고 하십니까? 저런 분이 우리나라 통일 정책을 최종 책임지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 비극입니다.

그다음에 통일부는 그동안 대북전단과 관련해서 정말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어요. 정말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윤석열의 여러 가지 발표문들을 봤을 때 제가 한방에 다 이해가 됐어요.

대통령실과도 상당한 수준으로 모의를 하셨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런 적 없습니다.

○**권칠승 위원**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런 적 없습니다.

○**권칠승 위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야당 위원들 중심으로 실정법으로 제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했고 이것을 계속하면 남북관계의 긴장이 높아지기 때문에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야기를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전혀 안 했어요. 오히려 권장했어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렇지 않았습니다. 권장한 적 없습니다.

○**권칠승 위원** 권장한 겁니다, 그게. 그게 권장입니다.

○**통일부장관 김영호** 저희들이 단체들과 계속해서 소통해 왔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권칠승 위원** 소통 안 했다고 저번에 대표자가 나와서 이야기했잖아요, 이야기 들은 것도 없다고.

아무런 조치를 안 했어요, 실정법으로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었는데도 그 이유가 뭐니까? 대북전단을 살포해서 남북관계의 긴장을 강화해서 비상계엄과 같은 이런 상황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는 사전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권칠승 위원** 사실과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모든 정황이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정부는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라고 했어요. 그런데 비상계엄은 국민들의 자유를 엄청나게 제한하는 조치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비상계엄이 선언되면 국민들의 자유가 심대하게 제한되잖아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포고령 1호도 그렇고. 자유민주주의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권칠승 위원** 아니,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내고 국방부에서는 부인을 안 했어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게 사실상 인정입니다. 그러면 대북전단 살포, 똑같은 겁니다. 이런 일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겨 놓고 집에 가서 TV나 보는 게 말이 됩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위원님, 저와 통일부는 그런 일을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웅 위원 오늘 첫 상임위가 그 일 이후에 생기다 보니까 하실 말씀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다 공감하시듯이 위기 상황이고 빨리 극복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여야정 협의체도 제안하시고 오늘 존경하는 김영배 간사께서 앞으로 자주 회의를 열어서 협력하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국민도 보고 있고 국제사회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회의를 할 때 지금 닥쳐 있는 외교·통일·안보 분야의 현안문제가 뭔지 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좀 더 실질적인 문제에 의견들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아까 외교부장관님 말씀에서 ‘제 거취도 제가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심정이신지는 공감을 하고요. 오늘 보고하신 대로 지금 국민들 걱정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오늘 외교 분야 내용 잘 정리하셨던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고 순간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두 분 장관님께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고, 통일부장관님께서도 여기 오늘 보고에 보니까 ‘남북관계 안정적 관리’라는 표현을 써 놓으셨던데 보고하신 대로 남북관계가 별일 없이 어쨌든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경기도 파주의 윤후덕입니다.

통일부장관님, 오늘 현안보고서 1페이지에 보니까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거기서 나와서 귀가를 했다라고 ‘귀가’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공식 문건에. 참 통일부의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문건에 ‘귀가’라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상단에 북한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이렇게 했다 돼 있어요. 12월 3일, 12월 4일 그 당시에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통일부장관, 말씀해 주세요. 그 시점에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저희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윤후덕 위원 없었지요?

그리고 그 밑에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전형적인 문건의 기록을 해 줬어요. ‘대북전단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접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오래간만에 좋은 얘기를 써 놨네요. 그전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이런 얘기만 했는데 이렇게 아주 전향적인 제대로 된 보고를 했네요.

그리고 12일 날 대북전단 민간단체들에 대해 신중 판단하라는 그런 요청을 했다고 돼 있어요. 이때 박상학 그 사람한테도 이런 요청을 했어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윤후덕 위원 누구 아는 사람 이것 보고해 주세요. 박상학에게도 이렇게 요청했어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박상학한테

알려 줬어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요청을 했습니다.

○**윤후덕 위원** 박상학이 알아들어 먹었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잘 이해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후덕 위원** 그리고 외교부장관님, 본회의장에서 윤석열로부터 종이 한장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윤후덕 위원** 그게 윤석열의 자필이었어요, 아니면 프린트물이었어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타자 쳐 있는 것이었습니다.

○**윤후덕 위원** 타자?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윤후덕 위원** 프린트물이에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하여간 자필은 아니었습니다.

○**윤후덕 위원** 자필은 아니었다 그런 얘기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윤후덕 위원**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경제부총리가 종이를 받아서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비상계엄 상황 하에서 재정자원 그리고 유동성을 확보해라’ 이런 얘기가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에요. 그런데 외교부장관께서는 그 종이 한장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그냥 놔두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윤후덕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계엄령이 해제가 안 됐으면 어떻게 이행하실 거예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게 특별한 내용도 아니고 뭐 이걸 지시사항이라고 주시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일반적인 것이었던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윤후덕 위원** 다음, 미 대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지요, 미국 대사?

○**외교부장관 조태열** 안 받았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언론에 나온 거예요? 전화도 안 왔어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고 언론에 보도가 돼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윤후덕 위원** 본인한테는 전화가 안 왔어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블링컨 장관과의 통화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갖고 제가 그것을 잠시 미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이런 얘기를 좀 해 봅시다.

장관께서 윤석열한테 70년의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그런 식으로 반대를 하고 그랬다고 그랬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윤후덕 위원** 그런데 외교부장관은 다른 장관들하고 달리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혹시 ‘미국이나 일본이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할 거다, 그러니까 제발 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얘기는 안 해 봤어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제 말은 그것보다 더 심한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이 비상계엄을 하면 강력히 반대한다 그런 얘기를 윤석열한테 했어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미국이 강력히 반대할 거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윤후덕 위원** 아니, 그것은 심증으로만 얘기하는 거고 윤석열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냐고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것을 모르고 그런 판단을 하셨을 리도 없고요. 그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고 그 이상으로 70여 년 동안 쌓아 놓은 게 다 무너질 정도라는 것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저희의 생각을 전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후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탄핵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외교부가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아까 업무 현안 보고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그런 방향 속에서 최근까지 취했던 몇 가지를 예시했고 앞으로도 더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전개할 생각입니다.

○**김건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대외 메시지는 모든 상황이 우리의 협정질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메시지가 정확하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것은 여태까지 우리 정부에서도 발신했고 미국 국무장관이나 주한대사 또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발신한 가장 핵심 메시지입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지금 우리 외교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기간이지 않습니까? 1월 20일이면 미국의 새 행정부가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외교가 위축되지 않고 사실 아주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시기인데 지금 국내 상황 때문에 좀 위축될까 봐 걱정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당연히 정상외교 같은 것은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통령권한대행의 외교라든가 아니면 외교장관의 외교 같은 것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펼쳐야 되고 그다음에 해외 방문 일정도 적극적으로 잡고 우리 간부들도 열심히 세계를 방문하면서 우리의 메시지도 전하고 우리 입장도 전하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블링컨 장관하고 곧 통화를 하게 돼 있고요. 제가 가든 블링컨 장관이 오든 대면 협의를 할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필요하면 일본도 방문을 검토할까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력이 좀 약화된 것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트럼프 신행정부와의 관계에서는 민간의 네트워크를 더 창의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경제부처와 협의 중이고.

내일모레 경제부총리와 함께 제가 외신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자 하는 것도 경제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고 또 안정된 정국을 국제사회에 발신하기 위한, 정국이 안정돼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저 나름대로의 생각에서 취하기 위한 조치고요. 하여간 민관 공조체제를 강화해서 약화된 동력을 다시 살릴까 그런 생각 중입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이 함께하는 의원외교 같은 게 국제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아까 존경하는 안철수 위원님께서도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이런 전환기적인 상황에서 조직의 기강이 해이되고 할 우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당연히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도 마구 유출이 되고 이런 상황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 외교에 여러 가지 큰 문제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누누이 재외공관에 대한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부 내 실국장 회의 때도 제가 모두 발언을 통해서 강조를 했고 그것을 전 공관에 확산시켜서 단단히 당부를 해 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과도기, 지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어쨌든 외교장관직으로 남아 있는 한 제가 중심을 잡고 조직을 이끌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 위원** 통일부장관님, 통일부장관님은 이 순간에 우리 통일부 직원들이 마음을 다잡고 이럴 때일수록, 비상 상황이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김건 위원** 더욱 철저하게 국정을 챙기고 그다음에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신 게 있으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제가 7일 날 아침에 긴급간부회의를 열어서 북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복무기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리고 통일부 산하기관들에 대해서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 철저히 챙기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김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주질의 순서가 모두 끝났습니다.

○**김영배 위원** 아닙니다. 저도 남아 있는데요.

○**위원장 김석기** 예, 하십시오.

○**김영배 위원**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외교부장관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그러니까 12월 3일 이후 4일·5일·6일 외신기자단이나 외교부 출입기자단에 보도자료 배포하신 거나 PG, 프레스 가이던스지요. 배포하신 게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제가 상세한 것은, 그것은 대변인이 있으면 대변인이 기억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게 없으시다는 말씀이지요?

○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 김영배 위원 미국하고 직접 통화를 처음 한 게 5일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당연히……

○ 외교부장관 조태열 통화가 아니고 골드버그 대사를 만났고요. 6일 날 아침에 블링컨 장관……

○ 김영배 위원 좋습니다. 5일이고요.

그러면 2차관, 2차관 어디 계시지요?

○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여기 있습니다.

○ 김영배 위원 2차관이 보도자료나 PG 내라고 지시하셨나요?

○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아닙니다.

○ 김영배 위원 아닙니까?

○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 김영배 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 외교부장관 조태열 뭐에 관한 PG인지를……

○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보도자료나 PG 낸 게 있느냐고요. 내라고 지시한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차관, 없지요?

○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 김영배 위원 유창호 부대변인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시간 좀 잡아 주세요.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 맞으시지요?

○ 외교부부대변인 유창호 맞습니다.

○ 김영배 위원 외교부 부대변인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직책이?

○ 외교부부대변인 유창호 바로 직전에는 외교부 본부에서……

○ 김영배 위원 그전에요.

○ 외교부부대변인 유창호 그전에는 대통령실에서……

○ 김영배 위원 미래정책비서관실인가요?

○ 외교부부대변인 유창호 예, 맞습니다.

○ 김영배 위원 행정관으로 계셨던 모양이지요?

○ 외교부부대변인 유창호 맞습니다.

○ 김영배 위원 유창호 부대변인이 외신기자들한테 자료 보낸 게 있으십니까, 문답지 같은 형식으로?

○ 외교부부대변인 유창호 정식으로 보낸 적은 없고요.

○ 김영배 위원 그러면 정식 아니고 보냈습니까?

○ 외교부부대변인 유창호 예, 개인적으로 보냈습니다.

○ 김영배 위원 개인적으로? 그 자료를 누가 작성했습니까?

○ 외교부부대변인 유창호 대통령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배 위원 대통령실 어디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까?

○ 외교부부대변인 유창호 외신……

○ 김영배 위원 비서관실?

○외교부부대변인 유창호 비서관실에서 받았습니다.

○김영배 위원 행정관입니까, 비서관입니까?

○외교부부대변인 유창호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중에 저런 내용이 있지요? ‘이번 비상계엄은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현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이다’, 맞습니까?

○외교부부대변인 유창호

○김영배 위원 맞습니까?

○외교부부대변인 유창호

○김영배 위원 대답해 보세요.

○외교부부대변인 유창호

○김영배 위원 맞는 모양이지요?

다음 페이지 넘겨 보세요.

거기에 보면.....

○외교부부대변인 유창호 제가 개인적인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현정질서 파괴라는 지적이 나온다’라는 질문을 해 놓고 뭐라고 했어요?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등등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통령의 입장을 그대로 쓴 거지요.

다음 페이지.

‘야당과 타협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통한 국정농단의 도가 지나치다. 45년 동안 이런 야당은 없었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맞지요?

○외교부부대변인 유창호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것은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것을 누구의 지시를 받고 보냈습니까?

○외교부부대변인 유창호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대통령실로부터 그런 자료를 받은 사람이 지금 유창호 부대변인 말고 또 있습니까?

○외교부부대변인 유창호 없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시를 안 받아도 그렇게 자료를 받아서 배포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왜 하신 거지요?

○외교부부대변인 유창호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의문에 제가 자료를 받게 됐고.....

○김영배 위원 이것 배포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외교부부대변인 유창호 제가 개인적으로.....

○김영배 위원 배포한 시점이 언제예요?

○외교부부대변인 유창호 배포는 아니고요, 전달.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일부.....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언제냐고요?

○외교부부대변인 유창호 12월 5일입니다.

○김영배 위원 5일 몇 시요?

○외교부부대변인 유창호
○김영배 위원 몇 시입니까?

○외교부부대변인 유창호 오후 정도 되는 것.....
○김영배 위원 오후에? 온 국민이 12월 4일 아침, 새벽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 발표하는 것을 보고 그때로부터 무려 30시간 가까이 지난 시점, 그 시점에 지금 이 것을 배포한 거거든요.

장관님, 부대변인이 보낸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알지도 못하고 동의하지.....
○김영배 위원 외교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아닙니다.
○김영배 위원 외교부차관!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김영배 위원 여기에 동의합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안 합니다.

○김영배 위원 장관님, 이것을 어떻게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또 다른 쿠데타 아닙니까? 쿠데타에 동조하는, 그러니까 이게 내란죄에 동조하는 행위거든요. 지금 법률.....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경악할 일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외교부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거의 다 하고, 윤후덕 위원님 빼놓고는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후덕 위원 예?

○위원장 김석기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점심 먹고 다시 해요. 길게 가야 돼요. 점심 식사하고 1시나 2시부터 다시 속개하지요.

○위원장 김석기 간사 간의 합의가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후덕 위원 점심 없이? 알았어요.

○위원장 김석기 보충질의 시간은 3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염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강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강 위원 의정부을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조태열 장관님, 장관님은 윤석열에게 계엄을 재고하라, 계엄 반대했다고 하셨는데 맞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이재강 위원 윤석열은 장관님의 견의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신 적은 있습니까, 뭐라고

말한 적?

○**외교부장관 조태열** 제가 아까 답변드렸듯이 대국민담화에서 하신 취지를 축약한 것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재강 위원** 다른 말 없었습니까?

윤석열은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하는데 계엄선포 이유가 경고였다는 것 자체도 위현이지만 윤석열이 자신의 혐의를 축소하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장관도 이 계엄선포가 야당에 대한 경고 정도로 느껴졌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것은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그렇게 생각하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재강 위원** 당시에 그런 느낌이 없었습니까? 윤석열이 사후에 경고성이라고 변명하는데 지금 돌아켜 보면 그게 정말 경고성이었는지 알 것 아닙니까, 느낌이?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것 다 사법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강 위원** 당시에 윤석열이 장관에게 경고성으로 하려는 거니까 적당히 할 거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는 한 적이 없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적당히 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

○**이재강 위원** 지금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글쎄, 그게 상황이 계엄 해제된 이후에 그런 생각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재강 위원** 장관님이 본회의장에서 계엄 전 대통령의 상황을 죽 말씀하셨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네댓 명에게 윤석열이 의견을 줬고 그 이후에 집무실을 나와서 옆의 접견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총리가 국무위원 의견 더 들어야 된다고 해서 그다음부터 국무위원 1명씩 개별적으로 불렀다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외교부장관 조태열** 1명씩 부른 게 아니라 불러서 들어온 사람들이 집무실에 1명씩 들어갔습니다.

○**이재강 위원** 예. 원래 이렇게,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당장 들어와라 이렇게 이전에도 국무회의를 이런 방식으로 소집해서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국무회의라고 생각하고 부르신 것 같지도 않고 저희는 국무회의라는 것을 알고 간 게 아닙니다. 그냥……

○**이재강 위원** 장관 말씀을 들어보면 국무회의 개최, 심의 의결, 폐회 그 절차가 없어 보입니다. 맞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이재강 위원** 단순히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에게 의견 개진을 한 거지 이게 국무회의가 아닌 거지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강 위원** 그간 드러난 정황으로 이번 계엄선포는 국무회의 없이 윤석열 독단으로 결정해서 선포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절차적으로 이번 계엄선포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국무회의적으로?

○**외교부장관 조태열**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것 동의합니다.

○**이재강 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총리가 권한대행이 됐는데 우리가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면 이것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국무위원으로서 거부권 행사를 동의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이 자리에서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다음, 차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지호 위원** 차지호 위원입니다.

저는 다양한 분쟁 상황과 전쟁상황에서 일을 하면서 사실 전쟁이 생각보다 쉽게 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정학적 관계와 안보상황 같은 대외 여건들과 국내에 강력한 정치적 동기가 있으면 사실 전쟁이 쉽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외통위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저는 지난 6개월간 사실 집중한 것은 어떻게든 전쟁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외통위에 있었기 때문에 대외적인 여건, 남북 간의 분쟁 상황을 높일 수 있는 안보 환경들과 그에 관련한 위닝 사인(warning sign)들, 경고 징후들에 주로 집중을 했었지요. 한반도가 한미일-북중러 대결 구도로 고착화되는 것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러 동맹을 하면서 무기 지원과 같은 군사적 수단으로 대응하는 것 그리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통해서 민간 대북전단 용인하고 대남 오물풍선 살포하는 것 그리고 평양 무인기 침투 같은 의혹들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집중했던 것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고 전쟁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을 겪고 이 비상계엄이 아주 강한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있었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랬을 때 이 비상계엄을 준비하고자 했고 여기에 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룹들이 이 대외적인 요건들, 결국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통한 전시 계엄 상황들을 의도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산은 한반도의 긴장도를 높여 국지전 가능성을 높이거나 불사하는 전략들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외교부와 통일부가 이에 동원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차관급이면 이런 상황들, 비상계엄으로 몰고 가는 용산의 전략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적극 동참을 하였거나 아니면 평화적인 외교부와 통일부는 활용만 당했거나.

통일부장관님과 외교부장관님,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활용당했습니까, 아니면 적극 가담하셨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적극 가담한 바 없고 그 첨보……

○**차지호 위원** 통일부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저도 적극 가담한 바 없습니다.

○**차지호 위원** 통일부와 외교부 장관은 우리 대외정책의 수장들이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정책들이 용산이 비상계엄에 대한 의도, 아주 강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 인식은 가지고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계속 염려가 되는 게 기존 외교정책 기조, 기존 대북정책 기조, 대북 압박 정책들, 이런 위기 속에서도 이 부분들이 반복이 될까?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한반도 긴장 상태가 높아진 상태에서 다시 전쟁 위기로 갈까, 이게 가장 걱정됩니다.

부디 외교부장관님과 통일부장관님은 대북 압박 정책과 같이 현재의 안보 상황을 격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정식 위원님 안 계시고 김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형 위원 저는 외교부장관님 그리고 여당 위원님들이 본말을 전도하고, APEC을 제가 흔들었습니까? 그날 제가 제일 먼저, 제가 일착으로 본회의장에 도착했는데요. 정문에서 30분 동안 경찰과 씨름했고 그 비현실적인 것만큼 지금도 비현실적입니다.

조태열 장관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서 사과 같기도 하고, 전화 안 받은 거예요, 사과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전화 안 받은 게 지금 여전히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 조태열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데 대한 비판은 감수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준형 위원 지금이라도 한 번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안 받겠습니까, 이번에도?

○외교부장관 조태열 가정적인 상황에 대한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

○김준형 위원 아까 소통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은 그러면 하급 차원에서 됐다는 말인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렇지요. 그냥 상황에 대한……

○김준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장관께서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밑에서 아까 김영배 위원님 말씀하신 저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미동맹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어야 되는데 전화를 안 받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하급 직원들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utterly false’라고 그랬는데 그 이상으로 제가 알기로는 미국은, 제가 미국을 전공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배들리 미스저지드(badly misjudged)라든지 디플리 일리지터멋(deeply illegitimate) 했다고 하는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뭐 상황에 따라서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준형 위원 아니, 공식적으로 한 겁니다. 그냥 둘이 만났을 때 클로즈드 미팅(closed meeting)에서 하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지금 분개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수습을 해야 되는 게 외교부장관의 몫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건넸다는 종이 메모에, ‘아무것도 아니라서’라는 데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외교부장관으로서 이것을 버리고 왔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하찮은 내용이면 하찮은 내용대로, 중요한 내용이면 중요한 내용대로 갖고 있으셔야지요. 그 정도의 책임 의식이 없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글쎄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놓고 온 것으로……

○김준형 위원 주로 버리십니까, 이런 메모? 대통령 메모인데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내용이 명심해야 될 그럴 내용이면 그렇게 안 했겠지요.

○김준형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를 보관하셨어야 됩니다.

김영호 장관님 받으셨습니까, 메모?

○통일부장관 김영호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김준형 위원 여러 분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감기로 주무셨다는 게, 저는 처음의 반응에 거의 믿을 수가 없고요. 바로 태세를 전환하셨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얘기했는데.

김수경 차관님, 두 가지로 전단을 안 막은 것을 합리화하셨습니다. 하나는 현재 판결을 왜곡하셨고 두 번째는 도발 원천이 북한이기 때문에 전단을 보내는 사람들한테 막을 수 없다, 기억하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직도 그 입장이십니까?

○통일부차관 김수경 북한이 계속 주장하기를 쓰레기통선은 대북전단 때문이라고 주장 을 하는데.....

○김준형 위원 그래서 안 막았다 하셨잖아요, 원인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 시냐고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그렇게 되면 북한의 도발을 우리가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될 수 있 기 때문에.....

○김준형 위원 지금은 어떠시냐고요. 왜냐하면 지금 태세 전환하셨잖아요. 그러면 통일 부는 이에 찬성하지 않는 겁니까?

○통일부차관 김수경 대북 전단은 민간단체에서 뿐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지나 자제가 어려워서 최근에 신중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김준형 위원 이 질문이 저렇게 힘듭니까?

○통일부차관 김수경 신중해 달라는 표현에는 자체의 의미도.....

.....

○위원장 김석기 다음,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정 위원 이 사태와 관련해서 여당의 중진 의원님 한 분은 통치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도 고시 출신도 있을 거고 여러 과정에서 헌법을 배우셨을 건데 통치행위로는 이미 왕권 시대에 존재했었고 그리고 입헌 군주제를 거쳐서 민주 국가로 오는 과정에서 이미 공멸된 이론이라는 것은 모두 잘 아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2010년도 유신헌법의 긴급조치 위헌 판결, 전원합의체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판결을 이끌어 낸 변호사 중의 1명입니다. 그래서 모 단체가 주는 초대 변호사상을 받기도 했고요. 또 그게 바로 이 자리에 이재정 국회의원으로 입성하게 만든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번의 계엄 사태는 명백하게 위헌일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수립 이래 여러 공화국을 거치면서도 절대 위배할 수 없는, 헌법 핵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정한 그런 명백한 대한민국에 대한 내란적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2014년 정당 해산 사건의 피청구인 대리인이었습니다. 관련된 판 결은요 명백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내란 선동입니다.

그때 당시 통합진보당 사건에 비하면 더 심각합니다. 더 현실적 가능성이 있고 권한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공직에 계신 분들—정무직 공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의견을 피력하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여기에 있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동조하신다면 그게 바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저는 그 당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 판결에 의하면 주요 구성원들이 그와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거나 그에 동조한 경우에는 위헌 정당입니다. 해산 사건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각별한 당부 부탁드립니다. 당부하는 바입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보고한 4페이지를 보면요 예전에 비해서 태도가 달라졌어요. ‘대북전단 민간단체들에 대한 신종 판단을 기 요청했다’라고 하고 통상 이 얘기 나올 때마다 나오는 ‘표현의 자유’라는 얘기는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통일부가 염치는 있으시다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기존에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대북전단 문제에 있어서 방치하셨던 그 부분이 북한과의 분쟁 가능성, 충돌 가능성에 대한 많은 우려, 이제 와서 느끼시는 거지요?

반성적 고려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저희들이 그것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정책에 관한 것이라면……

○**이재정 위원** 방치하지 않았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상황 변화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정 위원** 지금은 그런 행위가 충돌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위험한 행위 맞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저희들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다음은 위성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락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킨 후에 12월 12일 담화를 통해서 한중 간에 큰 분란을 또 일으켰습니다. 재임 시에 죄악의 한중 관계를 만들어 놓은 후에 업무 정지되기 전에 기어코 추가 해악을 끼친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비서실장이었던 김대기 씨가 지금 주중대사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저는 김대기 대사에 대해서 아무런 사적인 감정이 없습니다. 좋은 공직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분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가서 잘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 모두가 공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만큼 주중대사는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장관께서 김대기 대사의 부임을 보류하고 차기 주중대사는 차기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당시에 저는 무인기를 우리가 보냈을 거다라고 믿고 그 저의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정부가 또 전단 살포를 방치·조장하고 북한이 오물풍선으로 대응하는 것을 기회로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게 아니냐, 이것은 또 무슨 다른 저의가 있는 게 아니냐도 물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파병 정보로 정부가 과잉 대응을 하려 할 때도 그 저의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모두 다 쿠데타를 기획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에서 물어본 겁니다. 그때마다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은 다 시치미를 빼고 우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용현의 지시에 따라서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고 계엄 명분 마련을 위해서 기획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오물풍선에 대해서도 김용현이 원점 타격을 지시해서 남북 충돌을 유발하려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파병 건으로 계엄 분위기 조성하려는 것도 분명합니다. 거기에 홍장원 차장이 앞에 나선 바 있습니다.

제가 한국 외교를 위해서, 남북관계를 위해서 또 통일부를 위해서, 외교부를 위해서 좀 나서 달라, 말려 달라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아주 개탄할 일입니다.

두 분 장관께서 말씀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꾸 얘기가 이어지는데 장관님께, 외교부장관님께 지금 저희는 엄중한 공적 사안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적인 연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미국 대사의 전화는 받으셨어야 됩니다. 사실 미국이 전화하려고 하는 것은 계엄에 대한 입장을 밝히려는 거고 그것을 받아서 전하는 일은 비교적 간단한 일입니다. 그 일을 하셨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원 위원 외교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보면 ‘기존 외교정책 기조하에 일관성 있는 외교정책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외교정책 기조는 핵심이 가치 외교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 내란 행위로 인해서 한미동맹이 크게 훼손됐고 또 그 과정에서 발표한 중국에 대한 그런 터무니없는 대통령의 언급으로 인해서 한중 관계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소위 이 가치 외교는 용산의 국가안보실, 대통령의 생각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대통령실은 기능이 사실상 정지됐습니다.

장관님, 장관님이 중심이 돼서 또 외교부가 중심이 돼서 이 기조 전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이번 사태로 인해서 손상된 그런 국제사회의 기대, 신뢰 때문에 기본적인 정책 기조까지 바꿔야 되는지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아마 그 모멘텀을.....

○홍기원 위원 이번에 윤석열의 그 담화 발표에 보면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거의 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대통령의 지도하에 가치 외교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확인했는데도 그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 사태가 모든 정책을 한꺼번에 부정하는 그런 것으로 정의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기원 위원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게 한미 관계, 한중 관계, 한일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그중의 한 축인 중국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보십시오.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외교정책 기조를 세웠는데 어떻게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잘 고민해 보십시오.

○**외교부장관 조태열** 적어도 그런 식으로, 그런 인식을 가지고 대중 관계 하지 않았습니다.

○**홍기원 위원** 장관님은 그렇게 하셨겠지만 대통령 또 용산의 그 누구,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인식으로 했을 겁니다. 이제 그쪽의 기능이 정지됐으니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노력을 할 책임이 장관님께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홍기원 위원** 그리고 통일부장관님, 그동안의 북한 정책, 특히 대북전단, 오물풍선 또 통일 독트린 이런 것들이 정말 계엄을 염두에 둔, 비상사태를 염두에 둔 그런 것까지 저는 바탕에 깔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김영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홍기원 위원** 그동안 우리 야당 위원들이 지적한 게 정치적 공세입니까, 아니면 진정 한반도 평화를 걱정한 타당한 지적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통일부장관 김영호** 위원님들의 그 지적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항공안전법 그런 것들도 숙지하도록 했고 끝없이……

○**홍기원 위원** 이번 계엄 이전에 한 것을 보면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어요. 반성을 해야 바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석기** 다음은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애 위원** 12월 3일 국무회의가 열렸었던 대접견실의 여기저기에 포고령이 널브러져 있었다라고 하는 전언이 있습니다.

두 분 장관, 포고령 본 적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

○**한정애 위원** 어차피 사실관계는 조사 단계에서 나올 것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포고령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포고령을 보고도 제대로 아무런 발언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태호 안보비서관도 전화 안 받고 외교부장관도 전화 받지 않고 미국 측에서는 도대체 우리가 누구하고 얘기해야 되냐, 정부 누구를 대화 상대로 이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신뢰성 있는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나, 누구냐,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외교부장관께서는 5일 날 골드버그 주미대사 만나기 전에 직접 미 측하고 소통하지는 않았지만 외교부 차원의 소통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15일 기자 간담회 답변 중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이 레벨이 아닌 외교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미국과의 소통 라인은 어디였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상황이 종료된 오전에 차관이 소통을 했습니다.

○**한정애 위원** 차관이 소통을 했나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한정애 위원** 계엄선포 직후에 가진 장관과 간부단 회의할 때 차관도 있었습니까? 1

차관, 2차관 다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1차관은 출장 중이었고 2차관이 있었습니다.

○**한정애 위원** 간부단 회의 이후에 미국과 이와 같이 소통하라는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진에서 지금 소통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차관이 소통을 했다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날 상황 종료된 오전의 말씀은 그것은 차관님입니다.

○**한정애 위원** 간부단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미국하고 실무선에서 소통은 하지 않았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것은 실무자들이 서로 대사관하고 연락했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한정애 위원** 간부단 회의 직후에 미국하고 이와 같이 소통하라는 지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미국의 가치에도 부합한 것인가 정당하다. 그러니까 미국은 가만히 있어라’.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는 미국하고 소통하는 것은 차관이 오전에……

○**한정애 위원** 차관, 정확하게 어떻게 미국하고 소통했나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골드버그 대사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한정애 위원** 뭐라고 얘기했나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데, 전부의 내용을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어떤 배경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마지막에 했던 얘기 중의 하나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와 시스템을 믿어도 된다 그 얘기를 마무리로 했습니다.

○**한정애 위원** 정병원 차관보, 밑의 실무 라인에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지시한 바가 맞습니까, 실무적으로 연락을 할 때 ‘메시아 운운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의 가치에도 부합한 것인가 정당하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엄령이 해제되기 이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미국은 가만히 있어라……

○**외교부차관보 정병원** 그런 논의도, 그런 지지도 없었습니다.

○**한정애 위원**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요?

○**외교부차관보 정병원** 예.

○**한정애 위원** 그 지시가 너무 기가 막혀서 그대로 행하지 않았을 뿐이지요.

장관께서는 이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조사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 이번 비상계엄은 ‘소위 거대 야당, 국회가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 세력의 근원이다’ 이게 비상계엄의 근거로, 명분으로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데요. 이번 계엄 이후에

소위 국방위 등등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김용현 장관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서 남북 관계의 갈등을 조장하려고 했고, 특히 오물풍선에 대해서 합참의장에게 경고 사격하고 원점 타격하라, 원점 타격을 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남북 간의 국지전이나 전쟁으로 치달을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을 질타했다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지요?

우선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이용선 위원** 또 전단도 소위 대북심리전단팀 또 지작사인가요 등등에서 일부 보냈다라는 제보가 지금 나오고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는 국방부의 움직임을 잘 몰랐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전혀 몰랐습니다.

○**이용선 위원** 이전의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돼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오늘 보고에는 대북전단을 소위 남북 관계 안전, 이런 국민의 안전을 이유로 해서 태도가 많이 바뀌었네요?

그런데 그전에는 대북 전단 관련된 민간단체를 모아 놓고도 의견만 수렴했지 현행법에 의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한 계도를 전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통일부는 항상 국민의 안전을 중시해 왔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리고 법 개정 관련된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위헌 논란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 등을 들어서 반대해 왔는데 이런 기조는 이제 좀 바뀌는 건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 문제는 국회와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어떻든 이 과정에서 보이는 것은 남북관계에 분쟁을 초래하기 위한 북풍 공작에 통일부도 일정하게 공모 관계에 있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사고 있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다음에 외교부장관님, 지금 외교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12 담화를 통해서 한중 관계에 큰 폭탄을 윤석열이 던진 것은 아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파장이 있었습니다.

○**이용선 위원** 소위 간첩, 태양광 등등 있는데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것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대변인 논평을 했고, 거기에 대한 중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일단 상황을 정리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용선 위원** 미국과 일본의 외교부장관하고는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는 데 반해서 중국에 대한 소통은 앞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더딘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는 건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제 소통의 의사는 이미 북경에 전달한 지 며칠 됐고요 시간 조율

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칠승 위원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장관님이 반대의견을 피력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도 평가를 합니다. 시중에서는 70년이 아니라 석기시대로 후퇴시킬 것이다 이런 비아냥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국무위원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했으면 오늘의 비극을 막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외신들의 판단, 외국의 판단이 그야말로 참혹한 수준인데요. 이런 얼토당토않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언한 대통령이, 다른 모든 것을 빼고 그런 사람이 국제무대에서 외교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권칠승 위원 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짓밟은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라는 게 당위적으로도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외교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민주적 헌법 절차에 따른 모든 과정을 다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그 절차에 따른 결과는 다른 나라들도 다 수용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칠승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교활동을 못 할 겁니다, 어떤 법적 조치나 절차를 떠나셔요. 그 말은 그런 기본적인 판단조차도 못 하는 윤석열이다. 그 점에 대해서.....

그래서 만류하신 것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모든 외신들도 그렇고요 그날 밤에 국회에 모였던 의원들이 동일하게 의구심이 들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도대체 왜 이러지?’라는 거였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보도가 다 나왔습니다만 국정원의 홍장원 차장이 윤석열로부터 직접 체포 대상 명단을 듣다가 미친 엑스로구나 생각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메모조차 안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비슷하게 생각하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비슷하다고, 외교적 언어를 잘 쓰시니까 동의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일부장관님, 장관님도 부정선거 이것 믿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저는 없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전혀 의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권칠승 위원 믿겠습니다.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권칠승 위원 제가 선거 엄청 많이 해 봤거든요. 제가 97년부터 실무자로 입문해서 정말 선거 많이 해 봤거든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해킹이라고 하는 게 해 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현장에서 당락이 다 결정된 이후기 때문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발표문에 보면 그게 버젓이 나와 있고 또 이번 계엄 명분이 종북·반국가 세력 척결입니다. 그렇지요? 이것 평소에 장관 주장하고 좀 비슷한데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렇지 않습니다.

○권칠승 위원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이런 주장 하시잖아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국가 세력이나 이런 표현을 써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다음은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조구래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12월 9일, 10일 일본에 가서 한미일 북핵 고위급 협의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외교부외교전략정보본부장 조구래 예.

○김건 위원 보고에 따르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까?

○외교부외교전략정보본부장 조구래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인 측면은 크게 몇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러북 간 군사협력이 진행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상황이 한반도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했던 얘기입니다.

○김건 위원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다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외교부외교전략정보본부장 조구래 대한 방위공약을 확실하게 미국이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런 확고한 대비 태세를 통해서 한반도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이시바 정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외교부외교전략정보본부장 조구래 예.

○김건 위원 그 이후에 일본의 대북정책이나 이런 것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외교부외교전략정보본부장 조구래 일본의 대북정책이 변화됐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한미일 협력이라든가, 더군다나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일 간의 전략 협력이 더욱더 중요해졌다라는 인식을 보였습니다.

○김건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동포청장님, 이번 시국 상황 때문에 지금 우리 교민 사회가 상당히 많이 혼들리고 영향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재외동포청장 이상덕 지금 일단 재외동포 사회의 동향은 언론이나 이런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김건 위원 그다음에 이게 어떤 시기이겠지만 대선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외선거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포청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교부 본부에서 하는 건가요?

○재외동포청장 이상덕 재외선거와 관련해 기본적인 주무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되고요. 실제로 투표 과정에서는 재외공관 그리고 재외동포청 그리고 외교부가 같이 협업

해서 하게 됩니다.

○김건 위원 과거에는 정해진 선거가 있으면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재외동포청장 이상덕 예.

○김건 위원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준비할 기간이 짧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선관위하고 얘기를 시작했다든가 혹시 모를 선거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재외동포청장 이상덕 당장, 아직 그런 협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실무적으로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김기웅 위원님, 혹시 질의……

○김기웅 위원 (고개를 저음)

○위원장 김석기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유창호 대변인 좀 나오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유창호 부대변인이 하신 행위가 형법 제90조 내란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이라고 하는 조항에 위배됩니다. 여기 보면 선전하거나 선동하는 자도 처벌받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1997년에 전두환 내란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 난 것을 보면요 ‘직접 모의하거나 관여하지 않더라도 전체로서의 내란에 포함되는 개개 행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라도 그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여하였음이 인정된다면 그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한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부대변인 유창호 개인적으로 요청을 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했던 행위입니다.

○김영배 위원 아까 5일 오후에 보냈다고 했기 때문에 업무시간이지요. 그리고 공직자가 업무시간에 한 행위는 개인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교부부대변인 유창호 개인 인맥으로 개인이 했습니다.

○김영배 위원 잠깐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허위공문서 작성도 했어요. 제가 12월 5일 자로 요구한 자료에 보면 ‘관련 내용이 있느냐?’ 했더니 ‘유관기관에서 직접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대변인실에서 저희들한테 보내왔습니다, 외교부 공문으로. 허위 공문서가 작성된 거예요.

○외교부부대변인 유창호 거기에는 허위가 없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리고 외교부장관님, 당장 직무 배제하고 감찰하고 감사원 감찰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책이 뭡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관련 사항 먼저 조사하겠습니다, 사실관계 파악하고.

○김영배 위원 이것은 지금 외교부의 명운이 걸린 문제입니다. 내란에 가담한 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시가 있었는지 장관과 차관 혹은 고위 간부들의 모의가 있었는지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른 것 올려 주세요.

지금 국제사회가 심각합니다. 이코노미스트에 보면 ‘윤석열은 사임하거나 탄핵당해야 한다’라고 기사가 써 있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까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리처드 그레넬을 북한 담당 특별대사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고.

한미동맹에 심각하게 균열이 초래되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익에 심각한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레넬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에 특수임무 담당 대사로, 북한을 포함한 특별한 임무를 담당하는 대사로 임명됐다는 사실 자체가 북한 문제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생각을 말해 주는 것이고 우선순위에서 북한 문제가 배제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에서 저희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분이 제대로 임명돼서 정책적 구상을 다듬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이기 때문에 듀 프로세스(due process)를 거쳐서 협의를 거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로드맵과 구상을 더 다듬어서 선제적으로 신행정부와의 협의에 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 외에 전체적으로 다른 대비도 좀 하는 게 있으시면 잠깐 말씀 주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적인 동력이 좀 떨어진 측면이 있어서 트럼프 당선인 측과의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문제에 있어서는 민간의 어떤 기존 인맥과 동력을 좀 활용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과 제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북한 핵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타임 프레임을 가지고 협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사태가 터지기 전에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과의 통화가 가장 먼저 이루어진 외국 정상 중의 한 분이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트럼프 당선인 측과 그동안 저희들이 구축해 놓은 네트워크가 작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사태로 인해서 그것이 12월 동안 작동을 하지 않았고 다만 주미대사관을 통한 소통은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 동력을 다시 새로이 하는 데 총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재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강 위원 김수경 차관 나와 주십시오.

PPT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비상계엄 선포 특별 담화문 내용입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 폐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

그다음 화면, 다음 화면 또 보여 주십시오.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표현을 했는데 차관님, 정부 탄핵과 예산

삭감이 내란입니까?

○통일부차관 김수경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강 위원 차관은 그동안 윤석열을 옹호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참모로서 윤석열이 잘못된 길을 가도록 한 책임이 큽니다. 차관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국가안보실 통일비서관,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그리고 통일부차관입니다. 책임감을 못 느낍니까? 응당한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걸 묻는 이유는 계엄 발령이 있기 6일 전이지요, 11월 27일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통일부차관 김수경 대북전단 때문이라고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북한은 북한의 셈법에 따라서……

○이재강 위원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북한의 주장일 뿐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사법부의 판결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주장을 북한의 주장이라고 매도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종북세력이라는 뜻입니까?

○통일부차관 김수경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이재강 위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들었지 않습니까?

○통일부차관 김수경 저는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그것이 종북세력이라든가……

○이재강 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인과관계에 대해 북한의 주장에 따른……

○통일부차관 김수경 반국가 세력이라는 등의 판단을 내릴 자리도 아니었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없습니다.

○이재강 위원 아니 아니요, 북한의 주장이라는……

○통일부차관 김수경 접경지역의 안전을 어렵게 하는 것은 북한에 책임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강 위원 북한의 주장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북한에서는 오물풍선을 보내는 이유가 대북전단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강 위원 잠시만요. 분명히 그날 우리 하는 날 그래서 제가 사과를 요구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본인이 전화로 사과하겠으니 일정을 잡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위원님께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고 위원님께서 오해하셨다는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했습니다.

○이재강 위원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통령 의견은 무엇입니까, 지근거리에서 모셨는데? 말씀할 수 없습니까?

○통일부차관 김수경 예?

○이재강 위원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윤석열의 의견은 어떤 의견이었습니까?

○통일부차관 김수경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이재강 위원 비서관, 통일비서관, 계속 지근거리에서 윤석열을 모셔 왔는데 그것을 모르면…… 무슨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차관은 윤석열과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그의 생각, 의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북전단 금지법안 발의를 극도로 반대하고 의원들을 종북세력으로 몰았던 것 아닙니까?

○**통일부차관 김수경** 종북세력으로 몬 적도 없고요, 대통령이 대북전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바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재강 위원** 윤석열의 내란을 알고 민주당 의원들의 대북전단 금지법을 막았다면 명백하게 내란 공범이고 윤석열의 내란을 몰랐다면 내란을 방조한 책임이 큽니다. 그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통일부차관 김수경**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다음, 차지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발언하십시오.

○**차지호 위원** 두 분 장관님 모두 이번 비상계엄 이후에 해외 외신들과 해외 정부 관계자, 외교가에서 비상계엄 상황과 탄핵으로 이어진 상황들에서 굉장히 강하게 모니터링했던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어디에 가장, 왜 이렇게 전 세계가 한국 상황에 주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아마 뜻밖이라고 생각하고 놀랐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럴진대 외국인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또 한국이 그동안에 두 차례 탄핵도 경험한 특이한 역경을 거쳐 온 나라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복원력에 대한 강한 기대감도 함께, 걱정과 함께, 우려와 함께 그러한 강한 기대감도 보도 내용의 주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지호 위원** 외교부장관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사실 이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국제사회는 글로벌 민주주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윤석열 씨와 같은 극단적 리더십이 사실 이곳저곳에서, 고도로 민주화된 국가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리더십이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폭력적 상황을 동원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아마도 더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국제사회에서 한국 사례가 중요한 것은 회복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 명의 극단적인 리더십이 출현했을 때 과연 우리 민주사회 성원들 혹은 민주사회가 가진 여러 시스템들이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는가가 국제사회에 사실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여러 지도자분들도 관심은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다른 국가, 유럽이나 북미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한국이 어떻게 이것을 회복하고 있는가가 더 집중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탄핵이 이루어졌던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전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회복하는지 그리고 한국에 있는 케이스를 가지고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위기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동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소극적으로 한국만의 문제, 한국의 대외신인도의 문제로 보지 마시고 그리고 윤석열 씨가 별인 이 극단적 위기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국제사회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유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 속해 있던 국무위원으로서 입장이 난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지금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보여줘야 될 것은 우리 시민들이 만든 민주적 회복력입니다.

그리고 저는 뒤에 계신 통일부와 외교부 산하기관에 있는 직원분들께 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번 위기는 국무위원들과 대통령 혹은 국회에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했던 노력들, 회복이 가능했던 것은 여기 계신 시민들, 공무원도 시민이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시민들이 이것을 해 왔던 것이고 이 회복기의 과정 중에서 지금까지 보여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위에서 뭐라고 하시든지, 위에서 다시금 잘못된 방향을 만들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공무원 사회의 회복력을 보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다음은 김준형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형 위원 저도 이재강 위원님, 그 법안소위 때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부분 해명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외교부장관께서 반대하셨고 그다음에 70년을 되돌리는 거라는 것에 대한 평가는 하지만 지금 또 제가 하나 오해했던 게 뭐냐하면 저는 그때 전화를 장관께서는 안 받으셨지만 그 상황이 종료되기 전에 각급 기관에서 다른 채널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아예 외교부 전체가 그다음 날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아무 접촉도 안 한 거네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공식적인 접촉을 안 한.....

○김준형 위원 안 한 거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제가 그것 받지 않았으니까요.

○김준형 위원 저는 그때 만약에 받아 가지고, 대통령이 저렇게 비합리적으로 날뛸 때 못 막았다면 오히려 미국한테 반대한다는, 장관의 직을 걸고 장관이 해결되기 전에 미국한테 그 얘기를 했더라면—전화 받아서—지금의 장관의 신뢰성이나 한국의 신뢰성이 엄청나게 평가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글쎄요, 그 상황이 직을 걸고 견의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김준형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마지막 질문인 것 같아서요.

외환유치죄라는 것 아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뭐 정확……

○**김준형 위원** 그런 시도가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브래드 셔먼 의원의 말이나 지금 미국의 정찰기들이 남쪽을 계속 순회하는거나 이런 의심의 정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내 북한의 위장공격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문제도 저는 그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갑자기 북한 움직임이 보도가 안 되고, 갑자기 미국 국방부도 얼마 전에 북한의 전투 참여를 확인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정부 입장은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부 입장이 뭡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우리나라……

○**김준형 위원** 살상무기 제공할 겁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것은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살상무기 제공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우크라이나전의 전황과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전황 그리고 미국·NATO 국가들의 동향들 다 감안해서……

○**김준형 위원** 알겠습니다.

9번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이 메모지가 이번에 정말…… 공적 마인드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것도 저보고 또 기밀 서류 가져왔다 하지 마시고요, 저것 홍장원 씨가 직접 공개한 겁니다.

장관은 메모지를 버리고 최상목 부총리는 그다음 날 지날 때까지 보지도 않고, 그게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그런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저것 보시면 홍장원 메모지 밑에 있는 것 보십시오. 저게 우크라이나 비밀정보국의 주소입니다. 지금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로그인은 안 되지만.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온갖 전쟁의 정보를 퍼뜨리고 지금 접촉을 했고, 그분이 사실 우크라이나 이것을 주동하던 분인데 갑자기 지금 의인이 되어 있는데 여전히 외환유치죄의 가능성 있는 행동입니다. 저 메모지를 버젓이…… 완전 충체적 난국입니다, 정말. 어떻게 믿겠습니까?

○**위원장 김석기** 다음은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원 위원** 외교부장관님께 말씀드릴게요.

아까 김영배 위원 질의에 대해서 리처드 그레넬 특별대사 임명한 것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가지려는 시도로,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대화라기보다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과 우선순위가 낮지 않다라는 것을 환영한다는……

○**홍기원 위원** 그런데 사실 트럼프가 ‘나 김정은 잘 안다. 매우 잘 안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또 안보부보좌관으로 알렉스 윙,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북한과 실무대화했던 사람도 임명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북한과 대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홍기원 위원** 그래서 ‘외교부에서도 필요한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지금 이번에 내란수괴로 밝혀진 윤석열이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해 왔던 것, 특히 평양에 무인기도 보내고—우리 군을 통해서—또 오물풍선 원점 타격하라는 그러한 지시도 전 국방장관이 했다고 하고 이런 걸 보면 북한을 완전히 적대세력, 무너뜨려야 될 세력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권한대행이 행정권을 대행하고 있는데 대통령비서실에서 권한대행을 보좌하겠다고 그렇게 뉴스에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있는 조직은 다 법적으로 권한대행을 위해서 보좌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기원 위원**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권한대행 찾아가 가지고. 그런데 적어도 외교안보 분야만은 대통령실은 손을 빼야 됩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제가 더……

○**홍기원 위원** 손을 빼야 됩니다. 그것을 장관께서 권한대행께 국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고하시고.

지금 윤석열의 정신세계를 보면 정말 그 밑에서 일했던, 특히 외교안보 분야 일해 왔던 것 보면 지금도 계속 지적이 있지만 북한과 무력 충돌을 벌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북한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그것을 계엄의 이유로 삼으려고 했던 건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두 개 다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외교안보 분야에서 보좌했던 사람들이 지금 권한대행 보좌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권한대행께서 대국민담화에서 외교부장관을 중심으로 외교안보를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홍기원 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또 지금 권한대행이나 장관님이나 선출된 권력이 아니잖아요. 아까 국회와 잘 협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방향을 정하거나 추진할 때 당연히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됩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홍기원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통일부장관님!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홍기원 위원** 아직까지도 과거의 그런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계속 변명하고 계신데요, 생각 바꾸시고 국회와 협력해서 북한과의 문제 잘 풀어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김영호**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홍기원 위원님 조금 전 발언 가운데 ‘윤석열, 내란수괴로 밝혀진’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매우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발언 정정해 주십시오.

○**이재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기** 발언 정정해 주십시오.

○**이재정 위원** 위원장님!

- 김준형 위원** 온 언론이 다 쓰고 있는 말을……
- 위원장 김석기** 발언을 정정하세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 이재정 위원** 아무리 이견이 있더라도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 위원장 김석기** 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 이재정 위원** 왜 그게 할 수 없는 표현입니까?
- 홍기원 위원** 여기 마이크 좀 켜 주세요.
- 이재정 위원** 위원장님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 위원장 김석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매우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 이재정 위원** 화내지 마십시오. 적반하장입니다.
- 위원장 김석기** 지금 아직 수사단계에 있습니다.
- 이재정 위원** 자명합니다.
- 위원장 김석기** 내란수괴로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어제 이재명 위원이……
- 이재정 위원** 보수언론조차……
- 위원장 김석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 이재정 위원** 보수언론조차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김석기**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 이재정 위원** 혼자 마이크 켜져 있다고 그렇게 남용하지 마십시오.
- 위원장 김석기** 그 인터뷰 중에서 본인의 재판이 2심에서도 유죄판결이 나오면 대선 출마 어떻게 할 것인지 취지의 질문을 하니까……
- 이재정 위원** 집권 여당의 외통위원장으로서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경주시민들한테 사과부터 하십시오!
- 한정애 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 위원장 김석기** ‘우리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봐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재명 위원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 이재정 위원** 그러면 국민의힘 위원 정당입니다. 마이크 켜져 있다고 그렇게 함부로 남용하지 마십시오!
- 위원장 김석기** 민주당 위원님들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부정합니까?
- 이재정 위원** 너무나 간단합니다.
- 위원장 김석기** 부정합니까?
- 이재정 위원** 이 계엄선포가 합헌입니까? 내란입니다. 저도 담 넘어 들어왔습니다. 계엄군이 총구를 겨눴습니다.
- 위원장 김석기** 그것은 매우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습니다. 반드시 발언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정 위원** 명백합니다. 제 진술이 허위진술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 권칠승 위원** 국회에서 내란행위로 탄핵을 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석기** 탄핵하면 그게 확정이 되는 겁니까?
- 권칠승 위원** 국회의 입장은 정리한 것 아닙니까.
- 이재정 위원** 대법원 판결상 자명합니다.

- **김준형 위원** 주장할 수 있지요, 확정이 나니까 주장할 수 있지.
- **윤후덕 위원** 위원장, 그날 국회에 있었어요?
- **권칠승 위원** 국회에서는 확정했다 이 말입니다.
- **이재정 위원** 어디 여기 와서 위원장 자격으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국민한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 **홍기원 위원** 저 마이크 켜 줘야지요, 저한테 요구하셨으니까.
- **이재정 위원** 저 마이크 꺼 주십시오!
- **홍기원 위원** 아니, 저한테 얘기했으니까 제가 말할 시간을 줘야지요.
- **이재정 위원** 정말 위원장님 뺀뻔하십니다. APEC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 위원장님 탓입니다.
- **위원장 김석기** 발언권 받아서 하십시오!
- **이재정 위원** 집권 여당의 탓입니다.
- **위원장 김석기** 회의 진행을 제가 합니다, 지금!
- **이재정 위원** 회의 진행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 (「제대로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석기** 발언권 받아서 하십시오!
- **이재정 위원** 뺀뻔하십니다. 남용입니다.
- **홍기원 위원** 마이크 켜 주세요.
- **이재정 위원**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한 마디라도 사과하신 적 있습니까?
- **위원장 김석기** 제가 판단하는 겁니다.
- **홍기원 위원** 아니, 저한테 지금 발언 정정하라고 얘기했으니까 말할 기회를 줘야지요.
- **이재정 위원** APEC이 진행되면 그건 국민 덕분입니다. 국민이 살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 **위원장 김석기** 제가 이제 회의를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 **이재정 위원** 국회의원 자격도 없습니다, 정말!
- **홍기원 위원** 아니, 저한테 사과하라고 얘기했으니까……
- **위원장 김석기** 사과하겠습니까?
- **홍기원 위원** 마이크를 켜 주셔야 제가 얘기를 하지요.
- **위원장 김석기** 마이크 드리세요.
- **이재정 위원** 어디서 사과를 운운하십니까?
- **위원장 김석기** 사과하세요.
- **이재정 위원** 먼저 사과하십시오. 정말 너무하십니다.
- **위원장 김석기** 발언권 받아서 하십시오!
- **이재정 위원**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 **위원장 김석기** 손가락질을 누가 하고 있는데, 지금.
- **이재정 위원** 먼저 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석기** 발언권 받아서 하세요.
- **이재정 위원** 기억합니다. 똑똑하게 기억합니다.
- **위원장 김석기** 의사진행권 한 나한테 있습니다.

- 이재정 위원** 남용하지 마십시오. 어떤 권한도 남용해서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재량권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기** 이재정 위원님 퇴장해 주세요!
- 이재정 위원** 위원장부터 퇴장하십시오! 못 하겠습니다!
- 윤후덕 위원** 위원장! 위원장이 왜 위원을 퇴장을 시켜?
- 위원장 김석기** 퇴장하세요!
- 이재정 위원** 퇴장하십시오!
- 위원장 김석기**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 이재정 위원** 저는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이 있습니다.
- 윤후덕 위원** 위원장이 위원한테 퇴장을 시켜! 그런 적 있어?
- 이재정 위원** 염치가 있으시지요, 염치가!
- 위원장 김석기** 민주당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위원에게 퇴장하라고 여러 번 얘기한 적 있습니다.
- 이재정 위원** 염치가 있으십시오!
- 위원장 김석기**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 국회법에 그런 권한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재정 위원** 위원장이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 김영배 위원** 위원장님, 이게 지금 퇴장할 건입니까?
- 위원장 김석기** 발언권을 받아서 하라고 한 게 잘못된 겁니까?
- 이재정 위원** 위원장도 발언권의 남용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을 하라는 것이지 본인의 의견을 남용하라고, 그런 자리 아닙니다!
- 위원장 김석기** 회의 진행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다고 말씀드렸고 발언권을 받으라고 한 것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 이재정 위원** 모든 말씀이 잘못됐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회의 진행만 하셨어야지요. 왜 사과하라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 위원장 김석기** 잘못된 건 사과해야지요!
- 이재정 위원** 자유재량 아닙니다.
- 권칠승 위원** 잘못됐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국회에서는 내란의 혐의로 탄핵 결정을 했잖아요.
- 위원장 김석기** ‘내란수괴죄로 밝혀진’…… 뭐가 밝혀진 겁니까!
- 한정애 위원** 위원들이 발언한 것은 위원들이 책임집니다.
- 이재정 위원** 내란수괴를 옹호하시는 겁니까? 기어이 위헌 정당 해산당하고 싶습니까?
- 권칠승 위원** 국회에서 결정한 걸 국회의원이 이야기하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 김영배 위원** 위원장의 발언이야말로 부적절한 거예요.
- 위원장 김석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산회)

○출석 위원(19인)

권칠승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석기 김영배 김준형 김태호 안철수 위성락
윤상현 윤후덕 이용선 이재강 이재정 조정식 차지호 한정애 홍기원

○청가 위원(2인)

이재명 인요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전문위원 김사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외교부

장관 조태열

제1차관 김홍균

제2차관 장인선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조구래

차관보 정병원

대변인 이재웅

공공외교대사 홍석인

기획조정실장 배종인

의전장 김태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권기환

경제외교조정관 김희상

기후변화대사 정기용

국제사이버협력대사 이동렬

부대변인 유창호

감사관 임동혁

조정기획관 송시진

인사기획관 황소진

정보관리기획관 강근형

의전기획관 권재환

아시아태평양국장 김상훈

동북·중앙아시아국장 강영신

아세안국장 김동배

북미국장 홍지표

중남미국장 이주일

유럽국장 임형태

아프리카중동국장 김은정

영사안전국장 윤주석

국제기구·원자력국장 이철

개발협력국장 박종한

국제법률국장 황준식
공공문화외교국장 서빈
국제경제국장 김지희
양자경제외교국장 김진동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한민영
외교전략기획국장 이성환
외교정보기획국장 박장호
한반도정책국장 이준일
국제안보국장 윤종권
국립외교원
 원장 최형찬
 기획부장 이문배
 교수부장 고재명
 외교안보연구소
 소장 이문희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장원삼
 경영전략본부장 김동호
 사업전략·지역사업 I 본부장 이윤영
 지역사업 II 본부장 홍석화
 글로벌연대·파트너십본부장 손정미
통일부
 장관 김영호
 차관 김수경
 대변인 구병삼
 기획조정실장 오대석
 통일정책실장 김병대
 인권인도실장 강종석
 정보분석국장 김상국
 통일협력국장 황태희
남북관계관리단
 단장 강연서
국립통일교육원
 원장 고영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소장 이승신
북한인권기록센터
 센터장 김선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무처장 태영호
 사무차장 동승철
 자문건의국장 박학민
 위원지원국장 송순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조민호
 사무총장 이주태
 재외동포청
 청장 이상덕
 차장 변철환
 기획조정관 오진희
 재외동포정책국장 이기성
 교류협력국장 김민철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88)

11월 27일 회부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우리 정부의 살상용무기 지원 및 파병 등 일체의 전쟁 개입을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 및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

(2024. 11. 28. 이언주 의원 등 74인 발의)(의안번호 2206032)

11월 29일 회부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2)

12월 4일 회부됨

○진정서 송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제7차 건의문 반영 협조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참고자료로 송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일	제출일
대통령령 입법예고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 12. 2.
통일부훈령 제705호	통일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	2024. 11. 22.	2024. 12. 4.
통일부훈령 제706호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2024. 12. 3.	2024. 12. 4.
통일부훈령 제707호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2024. 12. 6.	2024. 12. 6.
통일부훈령 제708호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2024. 12. 10.	2024. 12. 12.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일	제출일
통일부예규 제91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예규 일부개정 예규	2024. 12. 10.	2024. 12. 12.
통일부예규 제92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 예규	2024. 12. 12.	2024. 12. 12.